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IMF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 10년 평가
변액보험 판매와 리스크관리 대책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 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도입 추진
가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증가 및 대응방향
FY07 상반기 보험모집조직 현황 및 경영효율 분석
보험업법 개편방안 마련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2007년 1월~9월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사례

◆ 해외보험 동향

북미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기타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IMF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 10년 평가	1
변액보험 판매와 리스크관리 대책	21
보험산업 환경	27
1. 해외 경제	27
2. 국내 경제	29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31
보험지표 동향	33
1. 보험산업 총괄	33
2. 생명보험	35
3. 손해보험	46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57
1.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도입 추진	57
2. 가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60
3.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증가 및 대응방향	62
4. FY07 상반기 보험모집조직 현황 및 경영효율 분석	67
5. 보험업법 개편방안 마련	73
6.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88
7. 2007년 1월~9월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90
8.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선	92
9.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사례	94
해외보험 동향	96
1. 북미 동향	96
2. EU 동향	106
3. 일본 동향	117
4. 기타 동향	127
통계표	137

테 마 진 단

◆ IMF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 10년 평가

양성문 팀장

1. 머리말

1997년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외환위기 당시의 보험산업과 IMF 구제금융 이후 보험산업의 변화 과정을 주요 지표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국내 보험산업을 평가해 보고자 함.

-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에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보험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금융개혁의 와중에서 수많은 보험회사가 퇴출되었으나 외국 보험회사를 필두로 한 신규 보험회사의 진입이 활발해졌으며, 상위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시장구조도 재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보험산업은 외형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익성이나 경영 효율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보험산업의 성장 과정을 주요 지표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국내 보험산업을 평가해 보고자 함.

2.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보험산업 평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보험산업 변화과정을 보험산업 구조조정, 겸업화, 보험료 성장 및 규모, 경영효율성 및 자산운용, 상품포트폴리오, 모집조직, 시장경쟁의 다변화,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산업 글로벌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

보험동향 2007년 겨울호

가. 보험산업 구조조정

- 외환위기로 초래된 보험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부실보험회사의 퇴출을 비롯한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임.
- 외환위기로 촉발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은 1998년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와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행정조치를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1차적으로 1998년 6월 지급여력 및 향후 정상적인 경영가능성을 기준으로 18개 생보사, 2개 손보사, 2개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요구하고 8월 경영정상화 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거 4개 부실생보사가 영업정지 후 계약이 이전되는 행정조치를 당함.

<표 1> 보험산업 구조조정 현황

	IMF		구조조정			
	1994	1997	1998(1차)		1999~2000(2차)	
생명보험	33	33	29	퇴출4사 (고려, 국제, 태양, BYC)	22	계약이전(두원), 합병(조선, 현대, 동아, 태평양, 국민, 한덕)
손해보험	16	17	16	합병2사(보증보험: 대한보증+한국보증 →서울보증)	16	-
합계	49	50	45	경영개선명령: 16개사	38	-

- 1998년의 4개 생보사 퇴출에 이어 부실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으로 경영부실이 드러난 대한생명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함.
- 대한생명은 자산부채 실사결과에 따라 대규모 경영부실이 밝혀지면서 국영보험회사화되고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7개사가 추가적으로 인수합병 됨.
- 계약이전과 인수합병, 그리고 국영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은 기존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대외신인도는 크게 제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사들도 국내시장에 직접투자나 합작투자 또는 M&A방식으로 적극 참여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도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의 회수는 아직 저조한 실적임.
-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험산업에 지원된 총 공적자금은 19조 3,827억원 이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2조 4,000억원에 불과하여 회수실적이 미미한 수준임.
- 다만 향후 대한생명(정부지분 49%) 지분매각이나 서울보증보험(정부지분 93.85%)의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자금의 추가 회수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나. 보험산업 겸업화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기관의 겸업화가 크게 진전되었음.
- 1980년대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와 전자,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업은행들이 본연의 상품인 예금, 대출 및 결제 업무 이외에 증권, 보험 등과 연계된 상품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취급하거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주변업무에 진출하게 되었음.
-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의 증권업 경영은 물론, 은행이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보험회사가 은행의 지분에 참가하여 업무를 제휴하는 등으로 은행과 보험의 경영이 확대되어 은행과 보험의 경영형태인 방카슈랑스가 확산됨.
- 국내에서도 보험회사는 신탁업, 자산운용업의 경영이 가능해졌으며, 2003년 8월 금융소비자의 편익제고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었으며, 단계별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확대되고 있음.
- 4단계 방카슈랑스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핵심종목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향후 시행시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임.

<표 2> 방카슈랑스 일정

시행시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03년 9월	2005년 4월	2006년 10월	2008년 4월
생명보험	개인저축성, 신용생명보험	순수보장성 (특약부 제외)	환급형상품 (특약부 제외)	개인보장성보험 (종신/CI 등)
손해보험	개인연금, 장기저축성, 주택화재, 개인상해	순수보장성 (특약부 제외)	환급형상품 (특약부 제외)	장기보장성보험, 개인자동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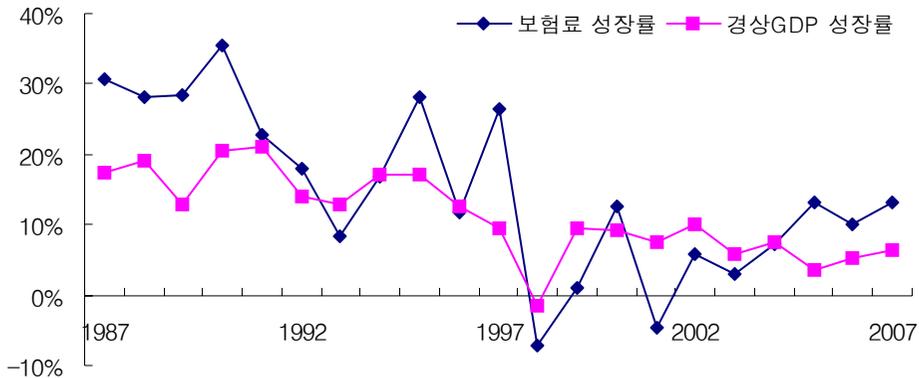
-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변액보험, 유니버설보험과 같은 선진상품이 등장하고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연계시킨 신상품이 출현하였으며, 여러 상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슈퍼보험이 출현하는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이 개발되었음.
- 2006년부터 “취득권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설계사도 펀드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생·손보사간 설계사의 교차판매가 2008년 8월부터 허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 허용될 예정임.
- 금번 보험업법 개정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는 향후 반드시 허용되어 공과금 납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령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업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우리 보험제도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나 금융권 및 보험회사간의 경쟁심화로 경쟁력이 약한 보험회사의 경우 경영상의 애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다. 보험료 성장 및 규모

-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FY2007 기준으로 108조 7천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FY1997 수입보험료 65조 3천억원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보일 전망이다.

- 외환위기 이전 국내 보험산업은 20%대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이다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성장률이 감소하였음.
- 특히, IMF 이후 보험료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경상 GDP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2005년 이후부터 변액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1> 보험료성장률 추이



-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입보험료 비중, 즉 보험침투도는 FY1997 13.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FY2005년 이후에야 비로소 증가세로 반전됨.
- 1997년 보험침투도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당시 생보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납 고금리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결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28.3%나 증가하여 생명보험 침투도가 10%에 달하였기 때문임.
- 2005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보험침투도는 2007년에는 12.3%에 이를 전망이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표 3> 우리 나라 보험침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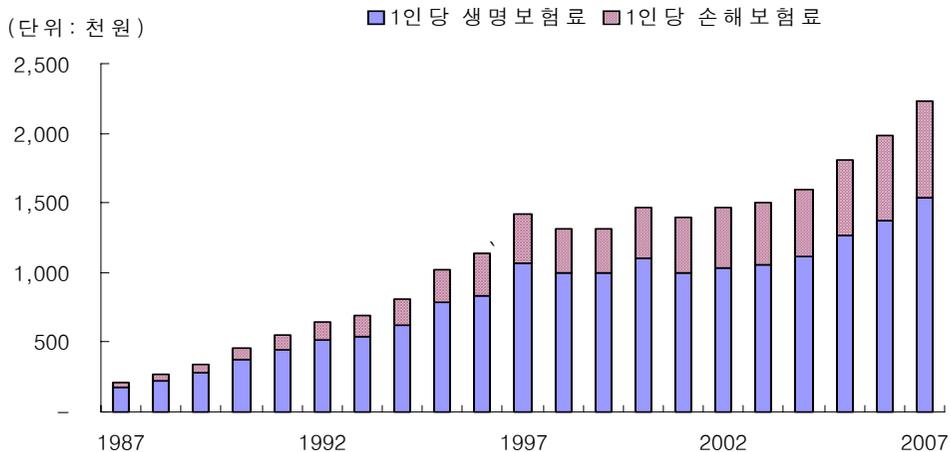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1987	1992	1997	2000	2005	2007
생명보험 침투도	6.3	8.8	10.0	9.0	7.6	8.4
손해보험 침투도	1.3	2.2	3.3	2.9	3.2	3.7
합 계	7.6	11.0	13.1	11.9	10.8	12.1

주 : 2007년은 본원 추정치임.

- 1인당 지출보험료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IMF 직후인 FY1998에는 약 131만원으로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하여 FY2007에는 22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 IMF 위기 이후 손해보험의 지출보험료가 생명보험에 비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자동차보급 확대, 차량 고급화 등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꾸준한 성장과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에 기인함.
- 다만 2005년에는 변액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라 생명보험의 지출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2> 우리 나라 보험밀도 추이



주 : 2007년은 본원 추정치임.

□ 세계보험시장에서의 위상변화

-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기준 국내 보험산업의 세계에서의 위상은 다음과 같음.
 - 수입보험료 규모 기준 : 세계 6위
 - 보험침투도(GDP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기준 : 세계 2위
 - 보험밀도(국민 1인당 지출보험료) 기준 : 18위

<표 4> 한국보험시장의 위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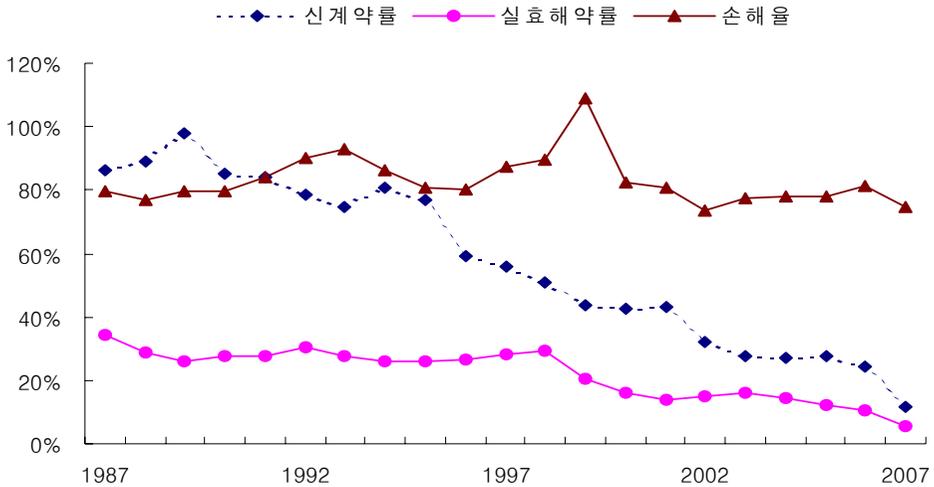
구 분	1987	1990	1997	2000	2006
수입보험료 순위	11	9	6	7	7
보험침투도 순위	4	1	2	3	4
보험밀도 순위	22	18	18	18	21
세계시장 점유율	1.04%	2.02%	2.66%	2.39%	2.72%

- 2006년 기준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입보험료 7위, 보험침투도 4위, 보험밀도는 21위를 차지하고 있음. 다만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72%로 1997년 2.66%보다 소폭 증가함.

라. 경영효율성 및 자산운용

- IMF 외환위기 이후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언더라이팅 강화 및 계약 유지관리에 기인하여 경영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신계약률이 감소하며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IMF 이후 경영개선의 노력으로 효력상실해약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1999년(보증사 손해율 462% 때문에 급상승)을 제외하고는 손해율이 비교적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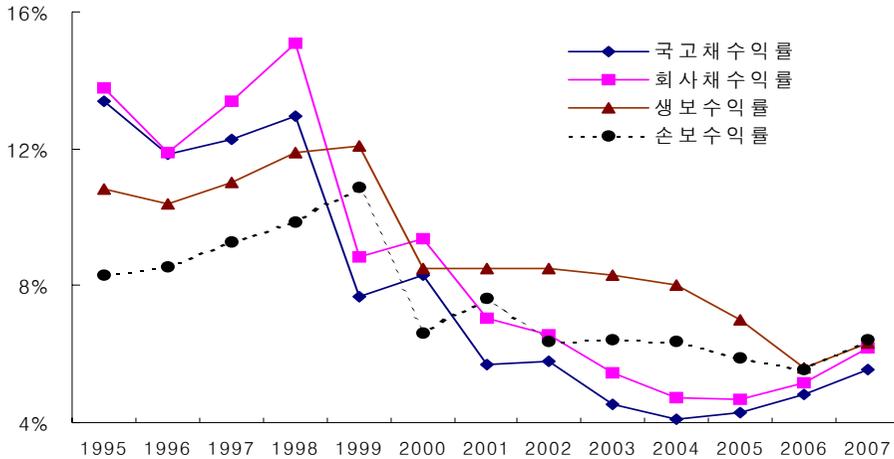
<그림 3> 외환위기 전후의 생·손보사 경영효율성



주 : 2007년 실적은 2007년 9월말 기준임

-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면, 자산운용수익률은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안전한 자산을 통한 위험회피, 보수적 자산운용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IMF 외환위기 전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채권금리 수준을 하회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채권금리 수준을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은 <그림 4>에서 보듯이 금리추세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금리동향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의 변화가 예상됨.
- 2007년의 경우 금리상승 추세 지속 및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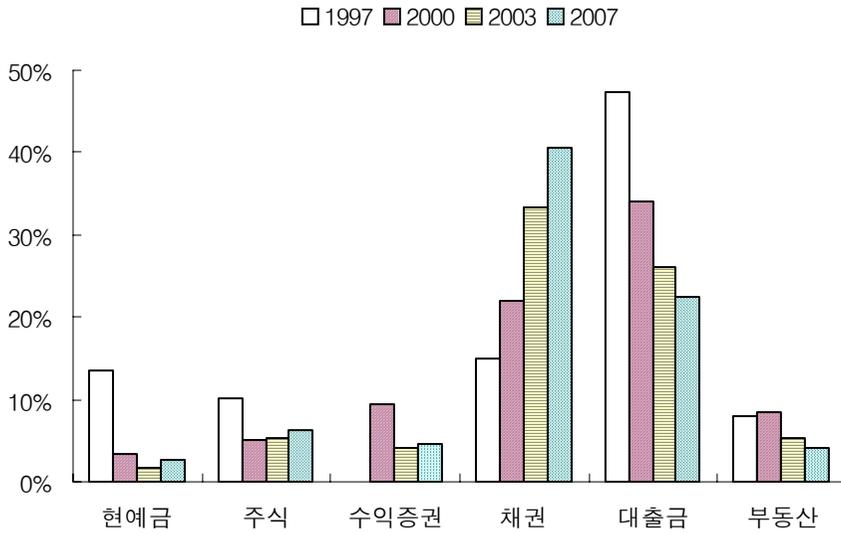
<그림 4> 외환위기 전후의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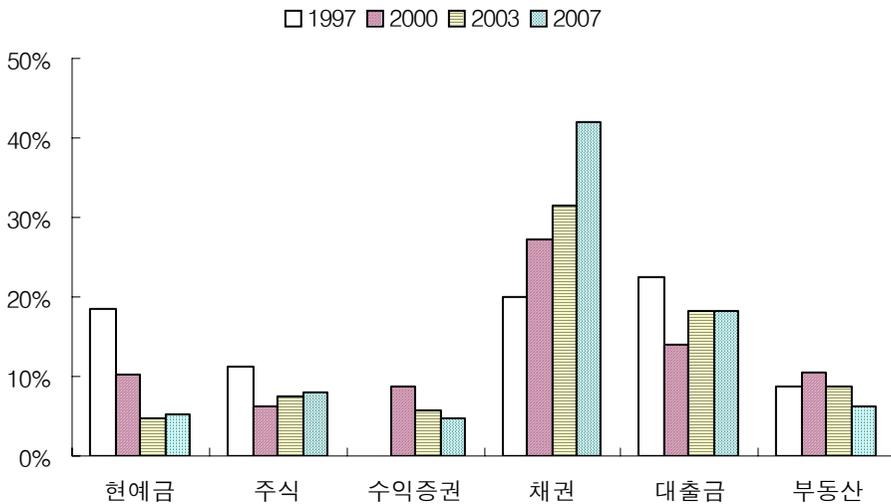
주 : 2007년 실적은 2007년 9월말 기준임

- IMF 전후로 자산운용 패턴에 큰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생·손보사 모두 채권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현·예금이나 대출금 비중을 축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부도나 가계파산 증가 때문에 대출비중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 보험금지급률이 감소함에 따라 현·예금의 비중을 축소한 것에 기인함.
 - 주식비중도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7년의 경우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주식비중을 다소 확대하였음.
 - 전반적으로 볼 때 IMF이후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패턴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외환위기 이후의 생보사 자산운용포트폴리오 추이



<그림 6> 외환위기 이후의 손보사 자산운용포트폴리오 추이



마.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

□ IMF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상품포트폴리오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망보험 및 변액보험의 비중 증가임.
 - 사망보험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와 보험회사의 판매 확대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비중이 42.1%에 이르고 있음.
 - 변액보험은 2001년에 판매가 시작된 후 부진한 실적을 보이다가 2005년부터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단체보험은 일반단체보험 가입 감소와 퇴직보험의 신규가입 저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최근 들어 보장성보험의 성장률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후소득 확보 목적으로 연금 및 변액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5> 외환위기 이후의 보험산업 상품 포트폴리오

(단위: %)

구 분		1997	2000	2003	2005	2007. 9
생명 보험	생존보험	29.7	21.0	23.0	19.5	19.6
	사망보험	13.6	24.3	45.5	44.1	42.1
	생사혼합보험	24.6	31.9	18.8	11.8	9.4
	변액보험	-	-	1.5	13.6	23.0
	단체보험	32.1	22.8	11.3	10.9	5.9
손해 보험	자동차보험	37.8	38.8	37.2	34.2	32.8
	일반보험	10.1	10.9	12.7	12.5	11.6
	장기손해보험	44.2	46.7	45.7	49.5	52.7
	보증보험	7.9	3.6	4.4	3.9	3.0

- 손해보험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장기손해보험의 비중 증가와 자동차보험의

상대적인 비중 감소임.

- 장기손해보험은 1990년 후반 이후 고성장세를 지속하여 손해보험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는 소비자들의 노후보장 수요(건강, 저축 등)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판매 확대에 기인하며, 향후에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는 보험회사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저축성상품 보다는 보장성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저축성의 경우에도 금리연동형상품 위주의 판매전략을 취함으로써 금리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
 - 다만 아직도 기존의 확정고금리상품 때문에 이차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즉, 금리연동형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비차익의 꾸준한 확보 등이 필요할 것임.

<표 6> 생명보험 이원별 손익추이

(단위: 억원)

구 분	1997	2000	2002	2004	2006
사차손익	5,591	7,272	13,060	9,766	9,516
이차손익	-11,090	-29,973	-7,078	3,837	-4,780
비차손익	-553	14,036	31,681	19,013	18,812
당기순이익	-8,454	-6,085	15,874	20,972	19,475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년호.

-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 손보사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손보상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하향 안정화가 손익에 가장 큰 기여를 했음.
 - 손해율 하락은 보험영업의 적자 폭을 축소시킴으로써 손보사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1997년에는 91.6%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81.5%로 크게 하락함으로써 손보사 손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당분간 장기손해보험의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들의 상해, 질병,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수요와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7> 장기/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7	2000	2002	2004	2006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91.6	90.9	82.4	86.4	81.5
자동차보험 손해율	64.1	73.2	76.7	76.6	73.7
당기순이익	557	-5,569	2,583	4,423	6,536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년호.

바. 모집조직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모집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점포 수와 설계사 수의 감소추세임.
- 외환위기 이전 보험산업의 고성장과 함께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던 보험회사 점포와 설계사 수는 외환위기 이후 보험회사 퇴출, 부실 설계사 정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9월말 현재 10년전에 비해 약 50% 감소하였음.

<표 8> 모집조직 규모 변화

(단위: 개, 명, %)

구 분		1997	2000	2003	2005	2007	증가율*
생명보험	점포수	11,379	6,570	4,809	4,418	4,606	-8.6
	설계사수	293,398	214,793	143,498	123,850	136,772	-7.3
	대리점수	11,177	6,017	7,211	10,290	10,400	-0.7
손해보험	점포수	4,465	3,001	2,507	2,486	2,530	-5.5
	설계사수	102,732	68,896	60,178	72,116	71,299	-3.6
	대리점수	51,823	53,321	48,217	45,646	42,493	-2.0

* 10년간(1997~2007)의 연평균 증가율임.

- 생명보험 설계사는 종합재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성 설계사 채용 확대, 일부 중소기업사의 영업확대 등으로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모집조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설계사정착률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FP와 같은 전문설계사의 증가와 함께 보험회사들의 선별적인 선발정책 등으로 설계사정착률이 생명보험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에 2.3배나 증가하였음.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상승 폭이 5.7%p에 불과하지만 생명보험 보다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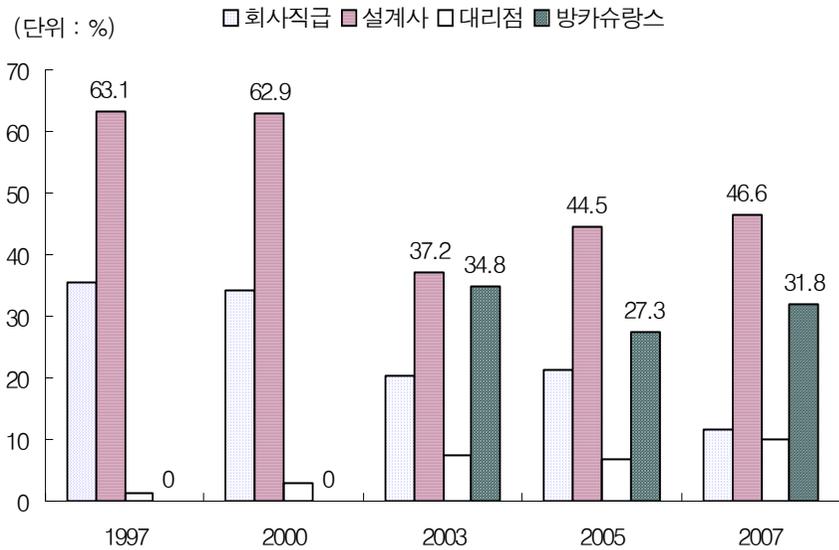
<표 9> 보험설계사 정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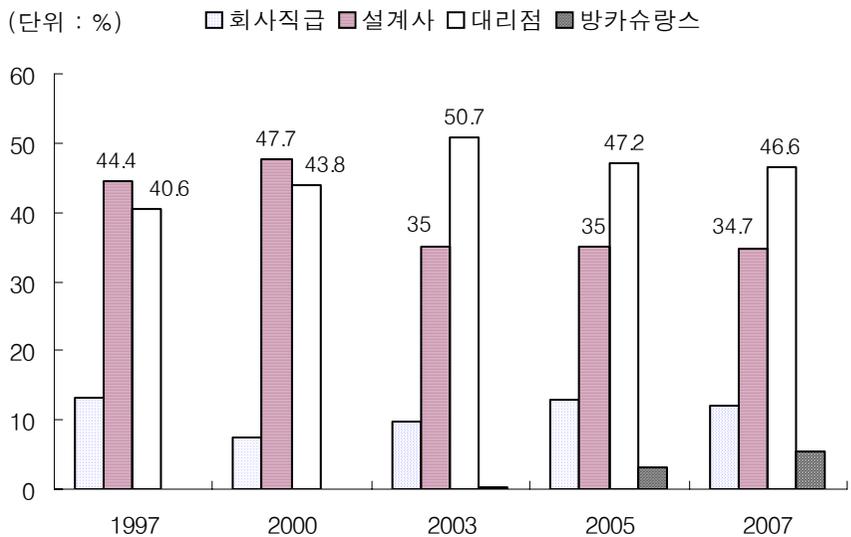
구 분	1997	2000	2003	2005	2007. 9
생명보험	18.4	22.4	31.2	36.1	42.0
손해보험	37.1	39.8	39.7	39.5	42.8

-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는 외환위기 전후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설계사와 회사직급(임직원) 위주로 초회보험료가 거수되었으나 최근 들어 그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방카슈랑스를 통한 초회보험료 비중이 30%대에 이르고 있어 방카슈랑스 효과가 생보사 기존 모집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설계사와 대리점 채널 위주의 모집조직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다만 최근 들어 대리점 비중이 설계사 비중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아직 방카슈랑스의 기존 모집채널에 대한 영향이 생명보험 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7> 외환위기 이후의 생보사 모집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그림 8> 외환위기 이후의 손보사 모집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사. 시장경쟁의 다양화

- 외환위기 이후 부실 보험회사의 퇴출과 외국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시장구도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특정상품만을 취급하는 전문보험회사도 등장하면서 보험시장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사 및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대형생보사들의 과점시장 체제가 약화되어 경쟁적 시장형태를 보이고 있음.

<표 10>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구 분	1997	2000	2003	2005	2007. 9
대형 3사	67.2	80.9	72.0	65.9	56.3
외국사	0.3	5.7	13.6	18.3	23.5
중소형사	32.5	13.3	14.4	15.8	20.2
허핀달지수	0.1729	0.2534	0.2024	0.1739	0.1326

- 특정상품만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도 꾸준히 등장하였는데, 생명보험은 주로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 손해보험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보험회사들은 보험산업의 규제완화 추세와 함께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각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 전문 생보사 : 하나생명, SH&C 생명
 -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 : 교보약사,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
 - 권원보험 전문 손보사 :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

아.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외환위기 이후 감독당국의 보험회사 감독정책의 큰 흐름은 규제완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감독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음.
 -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도입, 지급여력제도의 개정, 리스크평가제도(RAAS) 도입 등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규제완화의 지속과 함께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무건전성 감독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부실 보험회사의 퇴출 및 공격자금 지원 등으로 2001년 이후 동 비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11>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1999	2001	2003	2005	2006
생명보험	576.8	293.9	218.5	229.9	232.9
손해보험	74.2	195.1	280.2	294.3	281.0

- 소비자 권리의식의 확산에 따라 감독당국의 보험소비자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임.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제도가 강화되어 보험상품의 가격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보험시장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공시제도 강화는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정보공유 확대, 온라인 보험회사의 등장과 함께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상품내용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인식이 일치하도록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
 - 향후 변액보험 등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예정임. 또한 소비자 설명의무 및 자필서명 수령의무에 대한 근거를 보험업법에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자. 보험산업 글로벌화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해외네트워크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 금융의 국제화진전, 아시아 금융시장의 자유화 진전에 따라 해외진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개방은 1980년대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진행되기 시작되었으며, OECD 가입과 더불어 개방이 크게 진전되면서 보험산업의 대외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졌음.
- 국내보험회사들의 해외시장진출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내시장의 수요포화의 인식이 확산되고 아시아금융시장의 부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12> 보험회사 해외진출 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1월			
	지점	법인	사무소	계	지점	법인	사무소	계	지점	법인	사무소	계	지점	법인	사무소	계
생보	-	6	10	16	-	8	12	20	-	8	13	21	-	7	14	21
손보	7	8	21	36	6	7	20	33	7	8	20	35	7	9	21	37
합계	7	14	31	52	6	15	32	53	7	16	33	56	7	16	35	58

출처 : 금융감독원

-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보험산업이 수익성을 다변화하고 경영위험을 분산시켜 향후 보험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CEO의 결단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요약 및 시사점

1997년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 보험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세계시장에서의 위상도 회복되고 있음. 향후에도 보험산업이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함께 수익성 위주의 경영기조 유지, 자산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소비자 신뢰 강화방안 등 다양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보험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였으며, 보험시장의 개방화도 더욱 촉진되었음. 또한 보험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겸업화도 추진됨으로써 보험산업의 선진화도 크게 진전되고 있음.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보험산업은 질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보험료 규모나 총자산 규모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고성장세는 아니지만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보다는 보험료 순위 및 보험침투도 등에서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향후에도 세계시장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외형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및 정책분야,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험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보험산업의 경영효율성을 신계약률, 실효해약율, 손해율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자산운용수익률은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금리하락 추세와 더불어 점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 및 금리의 상승추세 전환 등에 따라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소비자들의 수익민감도 심화,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대, 금융권간의 경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외환위기 이후 우리 보험산업의 상품포트폴리오상의 가장 큰 변화는 생보의 보장성 보험 확대 및 손보의 장기보험 확대로 특징지워짐. 최근에는 생보의 변액보험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함께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고령화 진전 등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비자들의 니드는 지속될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환경 및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여야 할 것임.
- 외환위기 이후 우리 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생보의 경우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전통적인 설계사 조직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손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모집조직의 절대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전문직 설계사의 채용 확대 등으로 생보산업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모집조직의 효율성 지표의 하나인 설계사정착률은 생·손보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외국사들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 규제완화의 지속에 따른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은 또 다른 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는 향후에도 규제완화의 지속과 함께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RBC 제도 도입 예상에 따라 보험회사 부담이 증대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향후에도 우리 보험산업은 과거의 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내시장의 포화에 대비하고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해외진출에 진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변액보험 판매와 리스크관리 대책

최영목 부연구위원, 장동식 선임연구원

1. 변액보험의 판매추이와 리스크관리 중요성 대두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인해 변액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변액보험의 판매증가와 함께 변액보험과 관련한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은퇴 후 소득 마련을 위한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FY2005 이후 주식시장 상승에 힘입어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함.
 -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소비자의 니즈(needs)와 투자형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보험회사의 상품전략이 결합되어 지난 2001년 7월에 변액보험이 국내 보험시장에 도입됨.
 - 변액보험을 출시한 이후 FY2004까지는 판매실적이 저조하였으나 FY2005에 주식시장이 큰 폭의 상승패턴으로 돌아서면서 판매가 급격히 증가함.
 - 최저사망보험금보증, 계약자적립금보증 등과 같은 소비자의 니즈에 보다 부합하는 옵션이 내재된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면서 FY2006에는 이들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각각 5조원과 5조 6천억 원을 기록함.
-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 증가로 인하여 금리리스크는 축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변액보험상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음.
 - 생명보험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FY2002에 0.4%에서 FY2007 8월말 현재 23.0%까지 높아진 상태임.
 - 이와 같이 변액보험의 판매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그러나 변액보험의 판매비중 증가에 따라 아웃소싱 관련 리스크,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 판매 관련 리스크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다 높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1> 변액보험 판매 추이

(억원, %)

연도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기타	변액전체
FY2001	70 (0.0)	-	-	-	70 (0.0)
FY2002	1,976 (0.4)	-	-	-	1,976 (0.4)
FY2003	2,485 (0.5)	4,699 (0.9)	-	437 (0.1)	7,621 (1.5)
FY2004	7,633 (1.4)	10,001 (1.9)	-	6,155 (1.2)	23,789 (4.4)
FY2005	3,336 (0.5)	39,418 (6.4)	37,128 (6.0)	3,940 (0.6)	83,822 (13.6)
FY2006	3,302 (0.5)	50,421 (7.6)	56,295 (8.5)	5,260 (0.8)	115,278 (17.4)
FY2007. 9.	1,663 (0.5)	38,184 (10.9)	38,018 (10.8)	2,745 (0.8)	80,611 (23.0)

주 : 수치는 수입보험료이며, 괄호 안은 생명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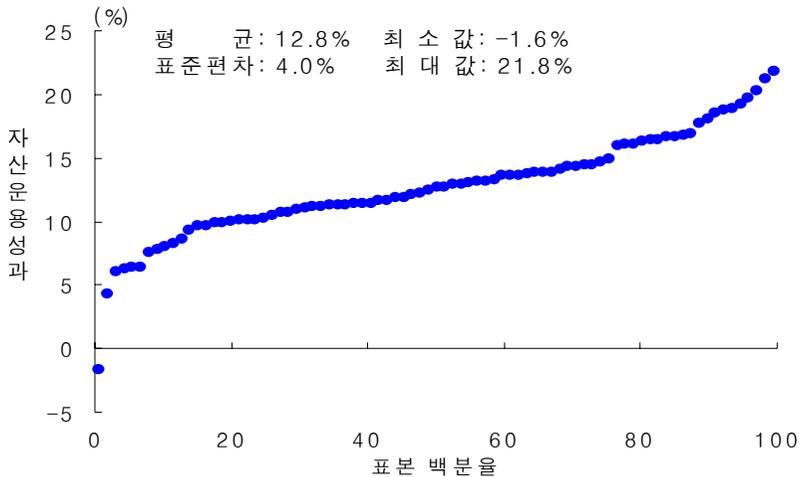
2. 변액보험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의 특징

변액보험과 관련된 리스크를 크게 투자부분의 아웃소싱리스크, 판매 및 사후관리 에 있어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리스크, 상품의 내재 옵션에 따른 보증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변액보험은 투자부분을 아웃소싱 하므로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 기본적으로 보험이 장기상품의 특성을 갖지만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투자성과의 변동이 발생할지라도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변액보험의 투자부분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펀드)마다 투자철학,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배분, 종목선택 등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동일한 펀드 유형에서도 투자성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말까지 1년 동안에 대해 83개 변액연금 채권혼합형펀드의 자산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12.8%, 표준편차 4.0%, 최소값 -1.6%, 최대값 21.8%로 나타났음(<그림 1> 참조).
 - 특히, 채권혼합형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편차가 4.0%라는 점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3.4%라는 점은 동일유형일지라도 자산운용회사(펀드)별로 투자성과에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냄.
- 따라서 변액보험의 투자부분을 대부분 아웃소싱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의 아웃소싱에 따른 리스크관리 문제가 매우 중요함.

<그림 1> 변액연금 펀드의 자산운용성과 분포



주 :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공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변액연금 채권혼합형펀드의 2006년 9월~2007년 8월말까지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또한 변액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과 달리 자산운용성과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투자형 상품이므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아 판매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가 매우 중요함.
- 변액보험은 기존의 보장성 상품과 달리 투자성과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펀드 수익률과 관련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음.

- 변액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조사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계약은 전체 응답자(717명)의 6.9%(5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험회사가 자체 점검한 불완전판매비율(변액보험상품 1.5%, 일반보험상품 1.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금융감독위원회, 「변액보험 판매동향 및 실태점검 결과」, 2006. 11.

-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한 채널을 통한 매출이 증가할수록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음.
- 따라서 간접판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변액보험의 판매 전후에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문제가 매우 중요함.
- 이와 더불어 변액보험에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최저연금적립금보증 등의 옵션이 내재됨에 따라 운용수익률 하락시에 보증리스크가 발생함.
- 변액보험의 옵션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실현하는 시기에는 회사의 보증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나, 수익률 하락 시기에는 보증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최저보증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
-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자산운용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손실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최악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변액보험의 판매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는 주식, 금리 등의 변화에 따라 옵션이 내재된 변액보험이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3. 변액보험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대책

자산운용 아웃소싱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친 운용회사 선정과 펀드평가 전문인력 채용의 고려, 소비자리스크의 관리를 위해서는 소비자 그룹별 관리지침을 작성, 보증리스크의 관리를 위해서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를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자산운용 아웃소싱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철학 및 투자전략의 타당성, 운용인력 및 리스크관리의 전문성, 과거 펀드 운용경력 등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거쳐 운용회사(펀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일단 자산운용 부문을 아웃소싱하게 되면 투자성과가 저조할지라도 단기간에 계약을 쉽게 파기할 수 없으므로 운용회사(펀드)의 선정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전적으로 아웃소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자산운용회사(펀드)의 선정에 있어서는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및 리스크관리 능력, 업계의 인지도, 펀드평가기관의 평가내용, 투자철학, 투자전략, 투자의사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여러 회사(펀드)들을 대상으로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 내부적으로는 자산운용 부문을 아웃소싱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비용절감효과, 내부 운용 대비 투자성과의 향상, 전체 업무 대비 아웃소싱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운용회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자산운용회사(펀드)를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상 운용지침의 준수여부, 투자성과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펀드평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에게 변액보험 펀드의 투자내역을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투자성과 및 리스크 수준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펀드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펀드를 선정된 이후에도 펀드 약관에 명시된 운용지침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간접투자 에 따른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 이러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펀드평가회사에 아웃소싱을 하거나 보험회사 자체에 펀드평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변액보험의 판매에 앞서 전문적인 자문서비스가 가능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의 판매시에는 상품구조의 특징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의 방식, 투자성과에 따른 책임소재, 투자성과에 대한 공시자료의 설명 등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함.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변액보험의 자산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금융자문서비스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의 판매에 있어서는 소비자 특성별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에 적합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자문서비스 제공시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마다 투자목적, 투자금액, 위험선호도, 투자기간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판촉활동을 전개할 경우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를 특성별 그룹으로 분류하여 판매 및 판매 후 자문서비스 제공시에 필요한 표준화된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산운용수익률이 하락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리스크를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헤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활용이 필요함.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 등을 재보험, 선물, 옵션 등을 활용하여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리스크를 외부로 이전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 전략은 최저보증에 따른 리스크 노출규모와 펀드별 운용 자산 구성 및 민감도 측정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 노출 규모 측정과 시시각각 변하는 민감도에 따라 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포지션을 취해야 하므로 상당 수준의 금융기법의 마련이 필요함.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7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등에 따른 주요 선진국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국들의 고성장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함.

- 2007년 3/4분기 미국이 수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소폭 감소했으나 일본 및 유로는 전분기에 비해 신장된 모습을 보임.
- 미국의 2007년 3/4분기 GDP성장률은 4.9%(잠정치)로 견조한 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개인소비지출이 전분기보다 확대되고 기업투자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수출도 확대된데 기인함.
- 중국경제는 3/4분기 GDP가 전분기보다는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11.5%의 성장률을 보였고 소비자물가도 6.1%나 증가하는 등 경기과열 우려 심화
 -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과잉 유동성으로 자산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금리인상, 위안화 절상 등 추가긴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일본의 2007년 3/4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보다 증가했으나 생산과 소매판매가 감소하고, 대미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유로지역 경제는 유로화 강세로 인해 수출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고용이 견실한 가운데 소비 및 산업생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표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단위 : %)

	2006			2007		
	3/4	4/4	연간	1/4	2/4	3/4
미 국	2.0	2.5	3.3	0.6	3.8	4.9
중 국	10.6	10.4	11.1	11.1	11.9	11.5
일 본	0.2	5.5	2.2	2.6	-1.6	2.6
유 로	0.6	0.8	2.8	0.8	0.3	0.7

주 : 미국 전기비연율, 중국 동기비, 일본·유로 전기비
자료 :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2007. 12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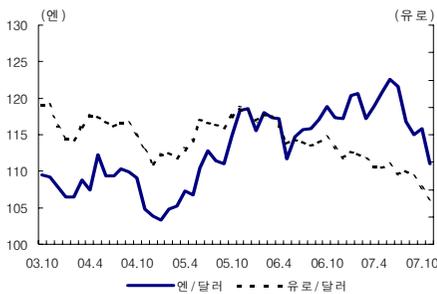
	2006			2007		
	3/4	4/4	연간	1/4	2/4	3/4
개인소비지출	2.8	3.9	3.1	3.7	1.4	2.7
주거건축투자	-20.4	-17.2	-4.6	-16.3	-11.8	-19.7
산업생산	4.0	-1.5	3.9	1.1	3.5	4.4
소매판매	0.8	0.2	6.2	1.6	1.3	0.9

주 : 소비지출·건축투자 전기비연율, 생산·판매 전기비.
자료 : 재경부, 『최근경제동향』 2007. 12

보험산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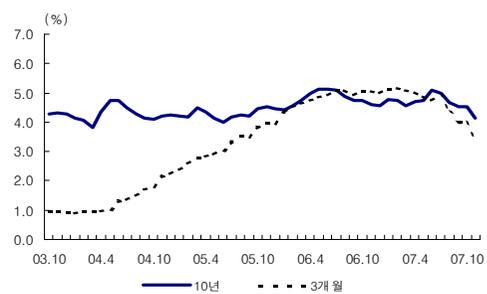
- 2007년 3/4분기 미국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및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경기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하락함.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7년 3/4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에 따라 9월에는 4.52%, 10월에는 4.53%, 11월에는 4.15%까지 하락함.
 - 일본의 추가하락, 장기금리 하락, 엔화 강세전환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3/4분기 성장률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는 미국의 주택대출 부실문제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자 8월 중 3.4% 하락하고 대미달러 및 대유로 엔화환율도 각각 1.5%, 1.3% 하락
 - 유로지역 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9월초 하락하였다가 영란은행 및 미 연방준비은행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 등에 힘입어 반등함.
- 미국의 증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우려로 8월중 큰 폭 하락하였다가 연방준비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채할인을 인하 등으로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반등함.
 - 유로지역 주가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급락하였다가 ECB의 유동성 공급,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반등하였으며, 일본 주가는 수출 부진 우려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주요국 주가 반등 등에 힘입어 하락폭이 축소됨.

<그림 1> 국제환율 추이



주 : 기간 평균 환율임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2>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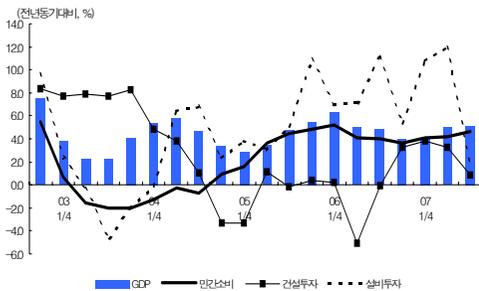
주 : 기간 평균 금리임
자료 : FRB St. Louis

2. 국내 경제

2007년 3/4분기 GDP는 소비의 견조한 증가와 수출의 증가세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하는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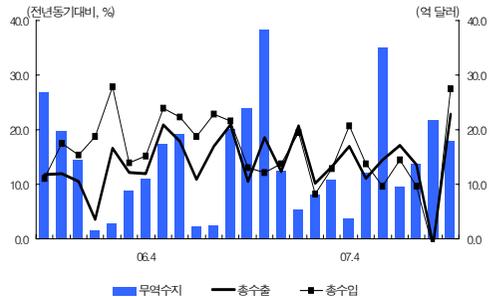
- 3/4분기 GDP는 민간소비가 4.7% 증가하고 수출도 크게 증가하여 견실한 회복을 보이면서 2/4분기에 이은 상승세로 5.2%(잠정치) 성장함.
- 3/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판매가 부진했으나 내구재의 큰 폭 확대(14.6%)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4.7% 증가함.
- 3/4분기 설비투자는 1.6%에 머물러 그간의 증가세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가 부진하여 낮은 증가를 보였으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14.8%의 증가를 보임.
- 3/4분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0.9%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건설기성액도 전년도 기저효과 및 공사일수 감소 등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감소세로 전환됨.
- 2007년 3/4분기 수출은 선박류,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입도 원자재와 내수회복 등으로 인해 소비재 수입도 증가세를 유지
- 수출은 3/4분기 대중국, 대유럽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으며 수입은 기계류가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소비재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그림 3>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4> 대외 거래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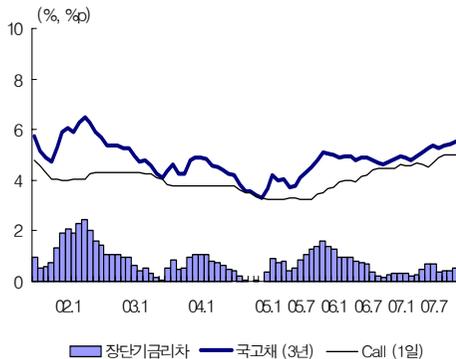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보험산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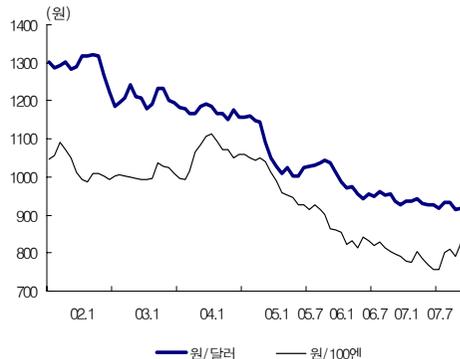
- 2007년 3/4분기 중 국고채 수익률은 7, 8월 연이은 콜금리 인상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나 미연준의 재할인을 인하여, 국내 소비지표 호조에 따라 상승함.
 - 단기 금융시장은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로 큰 동요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실제 콜금리는 7~8월중 콜금리 목표치 인상이 반영되어 9월 중순 4.9% 후반을 유지하는 한편 CD(91일물) 기준금리는 9월 중순 6년여 만에 최고치인 5.34%를 기록
 - 8월말 발표된 7월중 산업생산활동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소비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국고채 수익률이 추가 상승함.
- 원/달러 환율은 3/4분기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라 하락하다가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원/100엔 환율도 역시 엔화 강세를 보이며 등락하였음.
 - 원/달러 환율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아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현상, 외국인 주식순매도 영향 등으로 상승했으나 글로벌 증시회복, 수출네고자금의 대량 유입으로 하락
 - 원/100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른 엔 캐리 자금 청산 가능성 부각으로 엔화 강세가 나타남.

<그림 5>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그림 6>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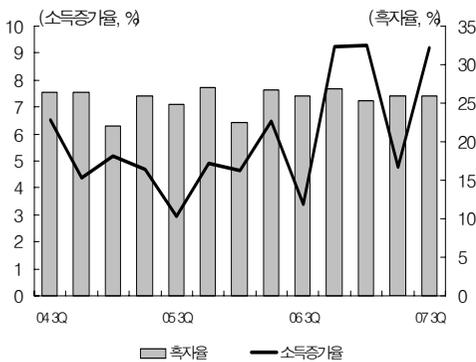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ECOS

3. 가계경제 및 시중 자금이동

소비자기대지수는 3/4분기 100대 초반을 유지하고 실업률도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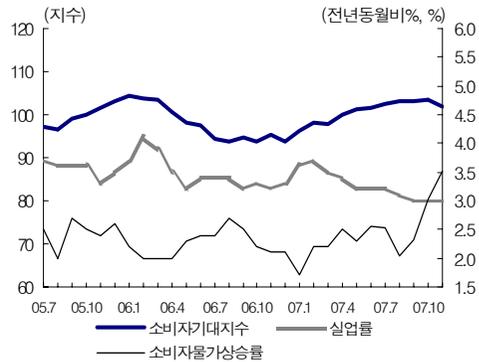
- 2007년 3/4분기 들어서도 소비자기대지수는 10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하락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분기말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시근로자가구의 흑자율은 전년 동기수준 유지
- 소비자기대지수는 2007년 4월 100을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11월 소폭 하락하였으나 10월 103.3까지 상승세를 유지함.
- 2007년 3/4분기 중 실업률은 3.0%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10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분기 2%대 초반을 유지했으나 10월 들어 3.0%, 11월 3.5%로 상승함.
- 2007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73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8만원으로 10.2% 증가하면서 흑자율(25.9%)은 전년 동기수준을 유지함.

<그림 7> 도시가계 소득, 흑자율



주 : 흑자율 = 1 - 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그림 8>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 통계청

보험산업 환경

- 2007년 3/4분기(FY2007 2/4분기)중 은행 수신은 저축성 예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투신권은 주식형이 크게 증가한 반면 MMF/혼합형이 감소함.
- 2007년 3/4분기에 은행은 전분기 대비 CD순발행은 증가했으나 실세총예금중 저축성 예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순수신이 크게 감소함.
- 3/4분기에 투신권의 자금흐름은 주식형이 증가했으나 MMF가 크게 감소하고 채권혼합형도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자금유입 폭이 전분기 대비 줄어들음.
- 3/4분기 증권사의 순수신은 환매조건부채권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고객예탁금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분기 대비 56.2% 감소함.
- FY2007 2/4분기(CY 3/4분기) 생명보험은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변액보험에 의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나 변액보험 해약환급금도 늘어 자금유입 폭이 감소하고 손해보험도 전분기 수준에 머무르면서 보험권의 순수신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9조 3,397억원을 기록함.

<표 3>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5	CY2006				CY2007		
	4/4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92,935	81,083	93,699	89,600	115,113	95,422	106,338	93,397
생명보험	75,781	66,460	74,238	69,914	94,257	74,700	83,189	70,215
손해보험	17,154	14,623	19,461	19,686	20,856	20,722	23,149	23,182
은 행	49,098	-41,969	225,384	128,483	181,165	33,002	101,574	8,442
일반계정	41,787	-85,002	183,429	82,785	165,339	-2,513	114,075	-42,781
신탁계정	7,311	43,033	41,955	45,698	15,826	35,515	-12,501	51,223
증 권	19,175	-8,291	18,650	48,065	13,445	29,858	85,722	37,556
투 신	74,571	184,828	-5,011	25,649	97,260	73,030	163,893	112,258
총 금	40,443	5,651	31,812	53,010	10,350	60,303	79,432	37,691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김진익 선임연구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7 2/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변액보험 고성장에 따른 견조한 성장과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세 및 자동차보험 성장지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13.2%의 견조한 성장 시현

- FY2007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13.2% 성장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분기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
- 생명보험은 단체보험이 (-)성장을 이어갔으나 증시호황에 따른 변액보험이 고성장세를 이어 감에 따라 개인보험이 고성장세를 보임.
-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이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자동차보험도 견조한 성장기조를 보임에 따라 전체보험료가 전년 동기대비 12.9%의 성장률을 기록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종목	FY2005	FY2006				FY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614,722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14.4	14.8	10.0	2.6	6.8	8.1	10.8	13.3
손해보험	257,235	69,259	72,299	77,962	76,309	295,829	79,300	81,659
	10.8	13.1	16.5	12.3	18.3	15.0	14.5	12.9
합 계	871,957	226,395	227,950	258,177	247,856	960,378	253,485	258,072
	13.3	14.2	12.0	5.4	10.1	10.1	12.0	13.2

-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7 2/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전분기대비 3.1%, 손해보험이 3.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3.1%의 성장세를 나타냄.

- FY2007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증가와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분기대비 3.1% 성장한 352조 7,354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성장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증가로 전분기대비 3.1% 증가한 291조 4,098억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로 전분기 대비 3.0% 증가한 61조 3,256억원을 기록하여, 60조원을 돌파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종목	연도	FY2006					FY2007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연간	2,393,619	2,460,733	2,559,105	2,657,808	2,731,316	2,731,316	2,827,189	2,914,098
		13.1	2.8	4.0	3.9	2.8	14.1	3.5	3.1
손해보험	연간	492,774	508,801	528,852	556,053	569,713	569,713	595,159	613,256
		13.4	3.3	3.9	5.1	2.5	15.6	4.5	3.0
합계	연간	2,886,393	2,969,534	3,087,957	3,213,861	3,301,029	3,301,029	3,422,348	3,527,354
		13.2	2.9	4.0	4.1	2.7	14.4	3.7	3.1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7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한 17조 6,413억원으로 2분기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을 이어감.
 - 개인보험의 경우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증시흐황에 따른 변액보험의 성장세 지속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4.4%의 고성장세를 나타냄.
 - 단체보험의 경우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그 폭은 다소 줄어든 -3.7%의 성장률을 기록함.
- FY2007 2/4분기 생명보험의 총자산 규모는 291조 4,098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3.1% 증가함.
 - 변액보험 특별계정 자산이 전분기대비 9.0% 증가하면서 총자산 증가에 기여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614,722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14.4	14.8	10.0	2.6	6.8	8.1	10.8	13.3
총 자 산	2,393,619	2,460,733	2,559,105	2,657,808	2,731,316	2,731,316	2,827,189	2,914,098
	13.1	2.8	4.0	3.9	2.8	14.1	3.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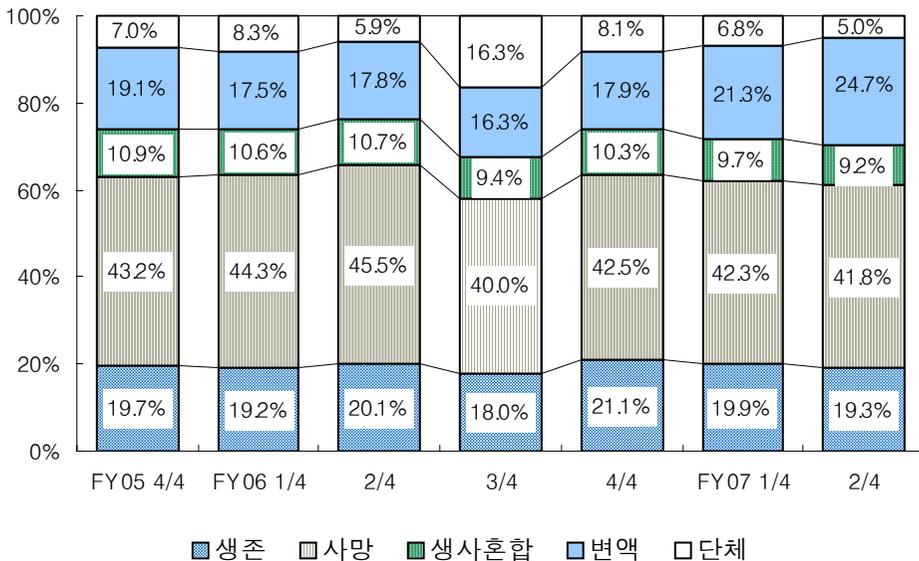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7 2/4분기 생명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변액보험만이 확대되었으며 나머지 전통적 사망, 생사혼합, 생존, 단체 보험의 비중은 모두 축소됨.

-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41.8%와 9.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7%p, 1.5%p로 감소한 것으로, 지속적인 비중 하락 추세를 이어감.
- 생존보험의 경우에도 전년동기대비 비중이 0.8%p 감소한 19.3%를 기록하였으며, 그간 이어오던 비중 확대 추세를 마감함.
-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24.7%로 전년동기대비 6.9%p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두 분기 연속 20%가 넘는 비중을 기록함.
- 단체보험의 경우 두 분기연속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p 축소된 5.0%의 비중을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7 2/4분기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16조 7,565억 원을 기록함.
 -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3조 4,008억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 또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7조 3,777억원을 나타내며 전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하락함.
 -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2% 성장하면서 두 분기 연속의 플러스 성장세를 마감하고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됨.
 -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7.2% 성장한 4조 3,514억원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두 자리수의 고성장세를 이어가며 개인보험의 성장을 견인함.
-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 단체보험과 특별계정 단체보험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3.7% 성장한 8,848억원을 기록함.
 -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이어감.
 -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31.9%로 지난 분기에 이어 큰 폭 하락하면서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성장률 하락을 주도함.
 - 퇴직연금의 수입보험료는 5,0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1,465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성장함.
- 일반계정의 경우 무배당 보장성 보험의 성장세가 높았으며, 상품 종류별로는 종신보험의 성장세가 소폭 회복되었고 특별계정의 경우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이 높은 성장률을 보임.
 - 무배당 저축성보험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9.3%로 무배당 보장성보험의 6.3%, 유배당 저축성보험의 -0.3%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상품 종류별로는 장기건강보험이 계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종신보험의 경우 5.2% 성장하며, 성장세가 개선됨.
 - 특별계정의 경우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이 모두 4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0.6% 성장에 그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119,887	30,188	31,314	32,398	36,266	130,166	34,612	34,008
	성장률	-1.2	5.6	6.4	7.5	14.3	8.6	14.7	8.6
	구성비	19.5	19.2	20.1	18.0	21.1	19.6	19.9	19.3
사망	보험료	271,215	69,685	70,840	72,127	72,985	285,637	73,721	73,777
	성장률	6.2	4.9	5.3	5.8	5.3	5.3	5.8	4.1
	구성비	44.1	44.3	45.5	40.0	42.6	43.0	42.3	41.8
생사 혼합	보험료	72,596	16,689	16,636	16,974	17,619	67,918	16,830	16,266
	성장률	-8.9	-8.9	-11.0	-6.1	0.6	-6.4	0.8	-2.2
	구성비	11.8	10.6	10.7	9.4	10.3	10.2	9.7	9.2
변액 보험	보험료	83,822	27,479	27,675	29,406	30,717	115,278	37,097	43,514
	성장률	252.4	127.2	70.7	18.8	-0.1	37.5	35.0	57.2
	구성비	13.6	17.5	17.8	16.3	17.9	17.3	21.3	24.7
개인 계	보험료	547,521	144,041	146,465	150,906	157,587	598,999	162,260	167,565
	성장률	14.0	14.9	11.3	6.9	5.5	9.4	12.6	14.4
	구성비	89.1	91.7	94.1	83.7	91.9	90.1	93.2	95.0
단체	보험료	67,201	13,095	9,186	29,309	13,960	65,550	11,924	8,848
	성장률	17.1	13.6	-7.1	-15.0	23.6	-2.5	-8.9	-3.7
	구성비	10.9	8.3	5.9	16.3	8.1	9.8	6.8	5.0
합계	보험료	614,722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성장률	14.4	14.8	10.0	2.6	6.8	8.1	10.8	13.3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7 2/4분기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상위 3사의 점유율만이 하락하고 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동반 상승함.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56.3%로 전분기에 비해 2.1%p 하락하면서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 추세를 이어감.
 -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23.5%로 전분기에 비해 1.4%p 증가하였으며 국내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20.2%로 전분기대비 0.7%p 증가함.
 - FY2007 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동반상승하면서 두 집단 모두 2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기록함.
 -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서 0.1326를 나타내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유지함.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3개사	65.9	63.6	62.4	62.5	60.7	62.3	58.4	56.3
외 국 사	18.3	20.1	20.7	18.7	21.0	20.1	22.1	23.5
국내중소형사	15.8	16.3	16.9	18.8	18.3	17.6	19.5	20.2
허핀달지수	0.1739	0.1614	0.1546	0.1578	0.1486	0.1554	0.1389	0.1326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7년 9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7 2/4분기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가 악화되었으나 투자영업수지, 기타수지가 증가하고 준비금전입액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76.6% 증가한 1조 3,774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4.3% 감소한 반면 투자영업수지와 기타수지는 각각 20.3%, 91.5% 상승하여 총수지차는 6.5% 증가함.
- 총수지차는 전년동기대비 한 자리수 증가에 그쳤으나 준비금전입액이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며 당기순이익 증가에 기여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1/4	2/4
총 수 익	보험영업	125,079	252,867	383,363	520,529	133,936	266,664
	투자영업	31,688	62,531	95,061	130,924	38,289	74,675
	기타	3,054	6,685	10,746	16,807	5,067	10,422
	소계	159,821	322,083	489,175	668,260	177,293	351,761
총 비 용	보험영업	97,465	203,548	307,943	418,740	105,648	224,377
	투자영업	5,351	9,367	14,586	19,616	5,487	10,741
	기타비용	1,605	3,246	5,054	6,817	1,906	3,836
	소계	104,421	216,161	327,583	445,173	113,040	238,954
수 지 차	보험영업	27,614	49,319	75,420	101,789	28,289	42,287
	투자영업	26,337	53,164	80,481	111,308	32,802	63,934
	기타	1,449	3,439	5,691	9,989	3,162	6,586
	소계	55,400	105,922	161,592	223,087	64,253	112,807
준비금전입		50,636	95,226	144,802	197,252	53,891	94,186
법인세		1,330	2,895	4,433	6,360	2,727	4,848
당기순이익		3,433	7,800	12,357	19,475	7,634	13,774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7 2/4분기 보험금지급률은 60.2%로 전년동기대비 5.1%p 증가하였고, 사업비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18.9%를 기록
 - 개인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은 사망보험만이 소폭 감소하고 나머지 생존, 생사혼합, 변액보험의 지급률이 상승하며 전년동기대비 6.2%p 상승한 55.5%를 기록함.
 - 특히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는 소폭 감소한 반면 지급보험금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28.6%p 증가한 138.5%를 기록함.
- FY2007 2/4분기 신계약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한 11.6%를 나타냈고, 해약률은 0.4%p 감소한 5.4%를 나타냄.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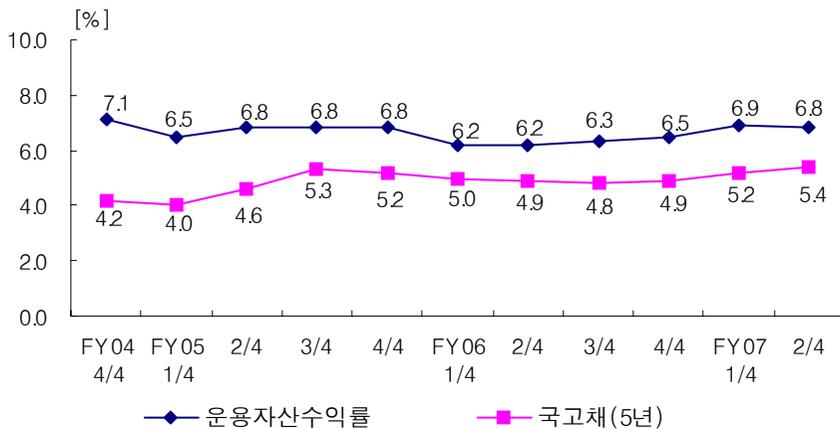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지급률	57.9	52.7	55.1	47.7	56.5	52.8	52.2	60.2
- 생존	66.6	60.8	66.7	62.5	61.0	62.7	60.0	75.0
- 사망	36.6	37.2	40.9	38.4	40.3	39.2	37.4	40.3
- 생사혼합	151.0	108.3	109.9	110.4	104.3	108.2	108.4	138.5
- 변액	6.5	12.1	14.7	20.9	26.3	18.8	30.1	35.0
- 개인계	59.9	45.6	49.3	48.2	49.5	48.2	47.9	55.5
사업비율	17.9	17.8	18.8	17.1	19.2	18.2	17.8	18.9
신계약률	28.0	5.5	11.5	17.7	24.5	24.5	5.4	11.6
해약률	11.9	3.1	5.8	8.1	10.6	10.6	2.8	5.4

주 : 1) 보험금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7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6.8%를 기록함.
- 항목별로는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수익률이 각각 1.0%p, 0.4%p 상승하였으며, 대출채권의 수익률은 0.3%p 하락했음.
- 유가증권 수익률은 매도가능 채권의 수익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주식관련 자산의 수익률 제고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한 6.4%의 수익률을 기록함.
- 변액보험 판매호조로 인해 특별계정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해 특별계정자산 수익률도 두 자리수를 유지함.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ECOS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1/4		2/4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1	4.5	2.4	4.3	2.1	4.8	2.2	4.6	2.5	4.4
유 가 증 권	60.0	5.4	59.7	5.5	60.5	5.7	60.6	6.6	60.4	6.4
○ 단기매매증권	2.3	5.8	2.3	6.0	2.1	6.2	2.1	18.4	2.0	14.6
- 주 식	0.1	17.4	0.1	19.0	0.1	21.4	0.2	97.7	0.2	75.0
- 채권 등	1.2	6.4	1.1	5.8	1.1	6.0	1.0	11.5	1.0	9.0
- 수익증권	1.0	3.9	1.0	4.7	0.9	4.8	1.0	14.3	0.9	12.1
○ 매도가능증권	47.0	5.3	46.7	5.4	47.7	5.7	47.7	5.2	47.5	5.5
- 주 식	5.1	2.5	4.9	2.2	4.7	5.2	5.1	3.2	5.2	3.6
- 채권 등	38.6	5.7	38.5	5.7	39.7	5.7	39.2	5.4	38.5	5.5
- 수익증권	3.3	5.2	3.2	6.6	3.3	6.4	3.4	6.2	3.7	8.6
○ 만기보유증권	9.9	5.8	9.9	5.9	9.9	6.0	10.0	5.6	10.0	5.7
- 채권 등	9.9	5.8	9.9	5.9	9.9	6.0	10.0	5.6	10.0	5.7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8	5.1	0.8	5.0	0.8	5.4	0.9	66.1	0.9	42.0
대 출 채 권	21.7	9.2	22.0	9.2	21.6	9.3	21.7	8.8	21.8	8.9
부 동 산	4.3	3.7	4.2	3.8	4.2	4.4	4.1	4.0	4.1	4.1
운 용 자 산 계	88.1	6.2	88.3	6.3	88.4	6.5	88.6	6.9	88.8	6.8
비 운 용 자 산	11.9	2.9	11.7	2.6	11.6	2.6	11.4	3.2	11.2	2.6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87.1)	5.8	100.0 (86.1)	5.9	100.0 (85.6)	6.1	100.0 (84.7)	6.5	100.0 (83.8)	6.3
특 별 계 정 자 산	12.9	6.6	13.9	6.5	14.4	6.7	15.3	15.6	16.2	13.9
총 자 산	100.0	5.9	100.0	6.0	100.0	6.1	100.0	7.8	100.0	7.5
총 자산규모	2,559,105		2,657,813		2,731,316		2,827,112		2,914,092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7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임직원의 비중이 줄고 설계사,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증가함.
- 임직원의 비중은 퇴직보험 초회보험료의 감소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5%p 하락한 11.5%를 기록하였음.
- 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1%p 증가한 46.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의 영향이 큼.
- 방카슈랑스 채널 또한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초회보험료가 증가하여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3%p 증가한 31.8%를 나타냄.
- 대리점의 비중도 대리점 수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8%p 증가한 10.0%를 기록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임 직 원	21.4	21.9	20.0	22.9	24.7	22.5	12.3	11.5
설 계 사	44.5	43.5	43.5	42.8	32.8	40.1	43.0	46.6
대 리 점	6.8	6.9	6.0	6.0	6.8	6.4	8.2	10.0
중 개 사	0.0	0.0	0.0	0.1	0.0	0.0	0.0	0.0
방카슈랑스	27.3	27.7	30.5	27.7	35.7	30.7	36.5	31.8
기 타	0.0	0.0	0.0	0.5	0.0	0.1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2,770	20,689	20,046	20,958	26,540	88,233	23,630	26,322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C/M 채널이 다른 채널에 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7 2/4분기에는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각각 27,070명, 136,772명, 10,400개를 기록함.
- 임직원 수는 FY2007 1/4분기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4분기에는 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증가율이 대형 3사보다 높았음.
- 설계사의 수는 국내중소형사의 남성설계사가 10.7% 증가하는 등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분기에 비해 1.0% 증가함.
- 대리점 수는 지난 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며 2/4분기에는 국내중소형사에서의 증가율이 높았음.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6,051	26,432	26,604	26,868	26,848	27,070
설 계 사	125,542	127,346	130,140	131,850	135,416	136,772
대 리 점	10,812	10,341	10,110	9,746	10,048	10,400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김세중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7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고성장세 및 자동차보험에서의 견조한 성장기조 유지로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한 8조 1,659억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은 분기별 보험료가 FY2006 1/4분기 3조원을 돌파한 이후 20%대 전후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체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에서는 전년도 손해를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 반영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0.6%의 성장률을 기록해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은 해상,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보증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됨.
- FY2007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3.0% 성장한 61조 3,256억원을 기록하면서 최초로 60조원을 돌파하였음.
 -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증가는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거수실적에 따른 준비금 적립에 기인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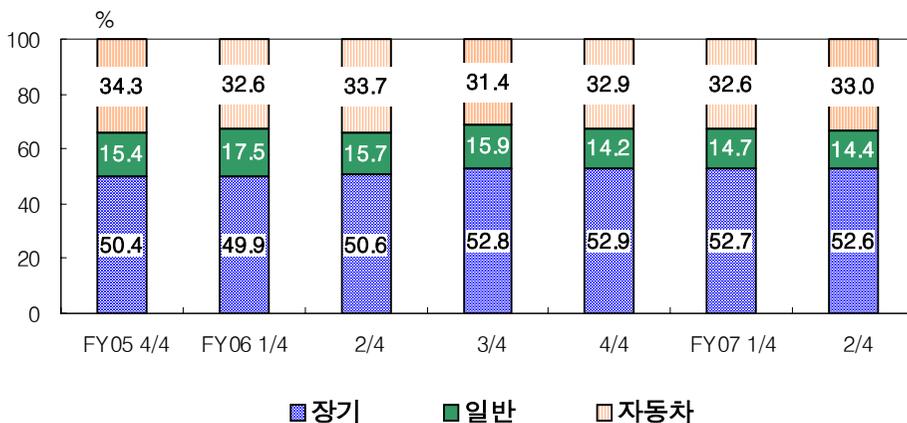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69,259	72,299	77,962	76,309	295,829	79,300	81,659
	13.1	16.5	12.3	18.3	15.0	14.5	12.9
총 자 산	508,801	528,852	556,053	569,713	569,713	595,159	613,256
	3.3	3.9	5.1	2.5	15.6	4.5	3.0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7 2/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52.6%, 자동차보험 33.0%, 일반손해보험 14.4%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0.1%p 감소한 반면,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은 0.4%p 증가함.
-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0.3%p 감소하였으며, 부문별 비중은 화재, 특종, 보증보험이 각각 0.1%p, 0.1%p, 0.2%p 감소하였으나, 해상보험의 점유비 변화는 없었음.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7 2/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6,9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성장하였음.
- 자동차보험은 전년도 손해를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고급차량 증가로 인한 대당보험료 증가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통합형 보험의 높은 성장률과 상해 및 저축성 부문의

꾸준한 수요 지속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9.5% 성장한 3조 9,850억원을 나타냄.

- 부문별 원수보험료 성장률을 살펴보면 통합형보험에서 56.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성장률은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상해보험과 저축성보험에서 각각 25.0%, 20.5% 증가함.
- 반면 전체 초회보험료는 마이너스 성장(-8.5%)으로 전환되었는데, 부문별로는 상해 및 질병 부문이 각각 29.2%, 60.5%로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통합형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장률이 각각 -14.0%, -33.7%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679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은 보험요율 인하 및 건설·투자부문의 성장부진으로 FY2006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FY2007 2/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1,7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선박보험이 15.6%의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적하보험은 요율인하로 성장이 정체되었고, 운송 및 항공보험은 각각 -3.6%, -13.8%로 성장 하락세를 기록함.
- FY2007 2/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모기지신용보험(MCI)의 성장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2% 감소한 2,341억원을 기록함.
- FY2007 2/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6,72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성장하였음.
 - 특종보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보험은 지난 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가계성, 기업성 보험 모두 양호한 성장을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5.3% 성장하였음.
 - 상해보험은 24.7%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기술보험은 건설공사보험에서의 보험료 성장으로 소폭(3.1%)의 성장세를 시현함.
 - 반면, 책임보험은 전문직업인배상 및 생산물배상 부문에서의 실적 저조로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함.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756	716	902	758	3,132	743	679
	성장률	-4.8	-4.7	-1.2	-3.5	-3.4	-1.8	-5.2
	구성비	1.1	1.0	1.2	1.0	1.1	0.9	0.8
해 상	보험료	2,101	1,604	1,304	1,314	6,323	1,735	1,783
	성장률	50.2	13.6	1.9	10.9	19.9	-17.4	11.2
	구성비	3.0	2.2	1.7	1.7	2.1	2.2	2.2
자동차	보험료	22,598	24,344	24,444	25,106	96,492	25,838	26,913
	성장률	5.7	10.3	9.4	13.6	9.8	14.3	10.6
	구성비	32.6	33.7	31.4	32.9	32.6	32.6	33.0
보 증	보험료	2,972	2,665	3,073	2,718	11,428	2,424	2,341
	성장률	31.8	11.5	10.1	3.4	13.5	-18.4	-12.2
	구성비	4.3	3.7	3.9	3.6	3.9	3.1	2.9
특 종	보험료	6,143	6,159	6,813	5,872	24,987	6,584	6,728
	성장률	6.9	7.2	8.8	14.0	9.1	7.2	9.2
	구성비	8.9	8.5	8.7	7.7	8.4	8.3	8.2
해 외 원보험	보험료	156	205	278	184	823	191	254
	성장률	20.9	43.1	69.9	6.4	35.2	22.4	23.9
	구성비	0.2	0.3	0.4	0.2	0.3	0.2	0.3
장 기	보험료	31,564	33,352	34,814	37,072	136,802	38,628	39,850
	성장률	19.3	21.6	21.2	23.9	21.5	22.4	19.5
	구성비	45.6	46.1	44.7	48.6	46.2	48.7	48.8
개 인 연 금	보험료	1,836	1,884	2,119	2,136	7,975	2,265	2,388
	성장률	9.0	9.8	18.5	19.4	14.3	23.4	26.8
	구성비	2.7	2.6	2.7	2.8	2.7	2.9	2.9
퇴 직 보 험	보험료	1,133	1,370	4,216	1,149	7,868	892	724
	성장률	-18.1	234.5	-18.3	52.8	2.1	-21.2	-47.2
	구성비	1.6	1.9	5.4	1.5	2.7	1.1	0.9
계	보험료	69,259	72,299	77,962	76,309	295,829	79,300	81,659
	성장률	13.1	16.5	12.3	18.3	15.0	14.5	12.9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7 2/4분기 손해보험회사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와 비교하여 큰 폭의 변화는 없으나, 전년동기대비 일반사계의 점유율이 소폭 증가한 반면, 전업사의 비중은 축소되었음.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70.7%로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단종사 실적이 포함된 일반사계는 0.9%p 증가한 95.5%를 나타내었음.
 - 온라인 단종보험회사는 가격경쟁 및 적극적인 마케팅 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9%p 증가한 3.6%를 기록함.
- 전업사는 보증보험회사의 보험료 성장률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1.1%p 감소한 3.0%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며, 외국사는 0.1%p 증가한 1.5%를 보임.
- 대형사 및 전업사의 점유율은 축소된 반면, 일반사를 중심으로 온라인단종사와 외국사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허핀달지수는 0.1518로 전년동기대비 시장집중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점유비	상위4개사	70.7	70.8	70.9	71.0	71.0	70.6	70.7
	일반사 계	94.3	94.6	94.5	94.6	94.6	95.4	95.5
	온라인단종사	2.5	2.7	2.8	3.0	3.0	3.5	3.6
	전업사	4.4	4.1	4.1	4.0	4.0	3.1	3.0
	외국사	1.3	1.4	1.4	1.4	1.4	1.5	1.5
허핀달지수	0.1519	0.1529	0.1532	0.1531	0.1531	0.1507	0.1518	

주 : 1) 일반사 계에는 온라인단종사(교보AXA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6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동경해상일동 7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총비용〉

- FY2007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471억원 늘어난 1조 60억원을 기록함.
- 금리상승추세, 주식시장 상승 등 자산운용여건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1.5% 증가한 1조 4,652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익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영업실적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한 14조 9,896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순사업비 및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증가로 보험영업비용이 14.8% 가량 증가한 15조 95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지는 -1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수지는 2,14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영업 수지차의 성장세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은 7,259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62,032	127,173	194,983	266,230	73,382	149,896
	투자영업	6,497	12,926	19,984	28,556	9,213	18,494
	기타	4,352	4,198	10,778	12,747	910	1,395
	소계	72,880	144,297	225,745	307,533	83,505	169,785
총비용	보험영업	63,356	130,775	201,481	274,656	72,948	150,095
	투자영업	1,795	3,257	4,778	6,161	1,988	3,841
	기타비용	4,193	3,811	8,617	10,543	1,387	2,109
	소계	69,344	137,843	214,876	291,360	76,323	156,046
수지차	보험영업	-1,324	-3,602	-6,498	-8,426	434	-199
	투자영업	4,702	9,669	15,207	22,395	7,225	14,652
	기타	159	386	2,161	2,204	-477	-714
	소계	3,536	6,453	10,869	16,173	7,182	13,739
법인세	1,055	1,864	3,233	5,501	1,992	3,679	
당기순이익	2,532	4,589	7,637	10,673	5,189	10,060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7 2/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3.0%p 감소한 98.9%를 기록함.
 - 사업비율과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2.8%p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합산비율도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나타냄.
- FY2007 2/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손해율 개선은 주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손해율 하락에 힘입은 것으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화재, 해상, 특종, 보증보험 부문에 걸쳐 손해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경우, 2007년 9월 자동차사고율이 전년동기대비 0.23%p 상승한 6.08%(대인 I 기준)로 증가하였으나, 보험료 인상 효과반영에 따른 보험료 성장과 고급차 증가에 따른 대당보험료 증가로 손해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은 보험료는 인하된 반면 화재사고는 증가하여 손해율이 상승하였고, 특종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1/4	2/4	
손해율	화재보험	48.6	40.7	40.2	39.6	40.9	47.0
	해상보험	51.3	50.3	46.4	52.1	47.3	54.8
	자동차보험	77.2	78.9	79.5	79.0	73.6	73.7
	보증보험	16.2	10.5	21.5	23.4	28.0	24.3
	특종보험	48.5	55.8	56.8	55.3	54.3	56.5
	해외원보험	26.1	40.4	36.7	44.7	26.8	29.4
	장기보험	86.7	85.3	84.3	83.9	81.8	81.5
	개인연금	119.9	119.8	118.9	125.4	115.8	116.0
	전 체	78.6	78.7	78.8	78.6	75.8	75.9
사업비율	22.6	23.2	23.5	23.8	22.4	23.0	
합산비율	101.2	101.9	102.3	102.3	98.2	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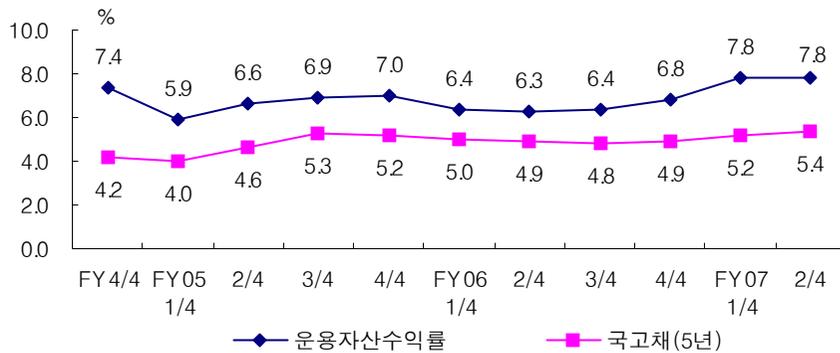
주 :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7 2/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7.8%를 기록하였음.

- 단기매매증권의 수익률은 전분기대비 1.4%p 감소한 15.3%를 기록한 반면, 매도가능증권의 수익률은 8.0%를 기록하면서 전분기대비 0.2%p 확대되었음.
- 현금과 예금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5.3%를 차지하였으며, 수익률은 4.9%로 소폭 감소하였음.
- 유가증권의 수익률은 소폭 하락한 반면, 부동산의 수익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 ×(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채권의 비중이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 주식시장 호조로 인해 주식 및 수익증권의 운용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채권과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익률은 각각 0.2%p, 15.3%p 증가한 6.4%와 20.6%를 기록함.

- 수익증권에 있어서는 비중과 수익률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한 18.1%, 부동산은 0.8%p 감소한 6.2%를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4.1%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하였음.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2/4		3/4		4/4		1/4		2/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4.6	4.6	4.5	4.7	5.0	4.6	4.8	5.0	5.3	4.9
유 가 증 권	55.6	6.2	54.9	6.4	54.6	7.1	55.0	8.8	54.5	8.7
○단기매매증권	6.1	7.8	6.1	8.1	6.2	7.5	5.7	16.7	5.3	15.3
- 주 식	0.3	34.0	0.3	45.9	0.3	48.7	0.2	157.7	0.4	143.2
- 채 권 등	4.6	7.3	4.0	7.5	4.0	6.8	3.5	13.8	3.3	11.0
- 수익증권	1.2	4.6	1.8	3.9	1.9	4.0	2.0	6.5	1.6	6.5
○매도가능증권	45.3	5.9	45.0	6.1	44.6	7.0	45.8	7.8	45.6	8.0
- 주 식	7.0	5.3	6.7	7.0	5.9	13.4	6.6	19.8	6.5	20.6
- 채 권 등	36.4	6.2	36.4	6.3	36.3	6.4	36.6	6.1	36.1	6.4
- 수익증권	2.0	6.9	2.0	5.8	2.4	6.5	2.7	8.6	3.0	8.5
○만기보유증권	3.4	6.1	3.1	6.2	2.9	6.1	2.7	6.1	2.6	5.9
- 채 권 등	3.3	6.1	3.0	6.2	2.9	6.1	2.6	6.1	2.6	5.9
○투자주식 ¹⁾	0.8	12.0	0.8	14.6	0.9	11.4	0.9	13.7	0.9	15.0
대 출 채 권	17.3	8.0	17.9	7.8	18.2	7.8	18.0	7.3	18.1	7.4
부 동 산	7.0	3.3	6.7	3.4	6.6	3.5	6.3	3.5	6.2	3.5
운 용 자 산 계	84.5	6.3	84.0	6.4	84.3	6.8	84.2	7.8	84.1	7.8
비 운 용 자 산	15.5	-	16.0	-	15.7	-	15.8	-	15.9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5.3	100.0	5.4	100.0	5.7	100.0	6.6	100.0	6.6
	(96.5)	-	(96.1)	-	(96.2)	-	(96.3)	-	96.5	-
특별계정 자산	3.5	-	3.9	-	3.8	-	3.7	-	3.5	-
총 자 산	100.0	5.1	100.0	5.2	100.0	5.5	100.0	6.4	100.0	6.4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7 2/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중 T/M과 C/M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직급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대리점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6%p 감소한 12.0%를 나타낸 반면, 대리점은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한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p 증가한 5.5%를 나타내는 등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6%p 감소한 34.7%를 기록해 전통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1/4	2/4
회사직급	9,694	18,875	29,029	36,508	9,369	19,053
	14.2	13.6	13.6	12.7	11.9	12.0
보험설계사	23,953	49,034	74,807	102,379	27,197	55,348
	35.2	35.3	35.2	35.6	34.7	34.7
대 리 점	30,988	63,081	96,627	131,298	36,592	74,176
	45.5	45.4	45.4	45.6	46.7	46.6
중개사	573	1,185	1,809	2,470	582	1,290
	0.8	0.9	0.9	0.9	0.7	0.8
방카슈랑스	2,679	6,317	9,579	13,907	4,334	8,721
	3.9	4.5	4.5	4.8	5.5	5.5
공동인수	238	564	949	1,398	334	754
	0.3	0.4	0.4	0.5	0.4	0.5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7 2/4분기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에서는 임직원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생산성이 하락한 반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임직원의 경우 FY2007 2/4분기 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한 반면,
-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경우 보험모집조직의 전문화·정예화 추세 및 최근 개인연금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월평균 모집액이 향상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산성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8.5%, 25.6% 상승함.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5,730	25,956	26,067	25,849	25,969	26,602
	37,677.6	72,718.1	111,364.2	141,235.8	36,077.1	71,624.0
보 험 설 계 사	74,230	74,823	76,390	73,408	72,045	71,299
	32,269.0	65,532.8	97,928.2	139,465.3	37,750.5	77,627.6
대 리 점	45,493	45,381	45,038	44,275	43,818	42,493
	68,115.8	139,002.4	214,545.7	296,551.9	83,510.0	174,561.5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지재원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도입 추진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한 안내 미흡 및 지급누락 등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한 안내 미흡, 일부 보험금 지급누락* 등 보험소비자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 자동차보험의 간접손해보험금(휴차료, 대차료 등) 미지급 문제가 발생 (→ '07년중 전산시스템 보완 등 개선 완료)

- o 보험금 지급절차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의 주요내용>

1. 보험금 청구단계

- 보험금 지급안내장 제공

- o 보험금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안내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중복보험 비례보상 내용(손보),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2년) 등

- o 보험금 청구서류 및 필요 증빙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안내장을 제공토록 하여 필요서류의 오류·누락에 따른 보험금 지급지연을 방지

- 보험금 지급가능 계약 안내서비스 제공

- o 피보험자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 및 지급 가능한 보험금 내역을 안내하여 보험금 청구누락을 방지

청구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안내장 및 지급가능 계약 안내서비스를 제공

**심사단계에서는
지급과정에
대한 인터넷
조회시스템
구축 및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를 강화**

2. 보험금 심사단계

- 보험금 지급과정에 대한 인터넷 조회시스템 구축
 -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소비자가 직접 처리절차 및 진행상황의 확인이 가능토록 함.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강화
 - 보험금 지급지연이 예상될 경우 서면안내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이를 신속히 안내*토록 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
 - * 지급지연 사유, 보험금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등을 안내

3. 보험금 지급단계

**지급단계에서는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 구축 및
보험금 지급
설명서를 교부**

-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 구축
 - 제출된 보험금 청구서류(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시 청구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모든 보장급부에 대한 지급 여부 등을 검증
 - * 예) 입원기간(입력시) ↔ 진단비, 치료비, 입원의료비 등의 지급여부 검증
 암수술비(후행) 지급시 → 암진단비(선행) 등의 지급여부 검증
- 보험금 지급설명서 교부
 -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 세부 산출근거를 안내하고,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불지급 또는 감액 지급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보험약관 조항) 등을 상세히 안내

<기대효과 및 도입일정>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회복
기대

- 보험금 지급 과정 전반에 걸친 충분한 안내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 소비자의 만족도가 제고되는 한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 쇄신 및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07.11월중)하고,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 개선 및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08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표 1> 단계적 도입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08년)			
		1/4	2/4	3/4	4/4
보험금 청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지급안내장 제공 • 보험금 지급가능계약 안내서비스 제공 	▶	시행		
				▶	시행
보험금 심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강화 • 인터넷 조회서비스 구축 	▶	시행		
				▶	시행
보험금 지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지급설명서 교부 •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 구축 				▶
					▶

주) 시행준비 —▶

*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7.11.08.

(박정희 연구원)

2. 가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허위 기록 및
관리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기록·관리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1월 18일부터 이를 시행함.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 개정안은 지난 5월 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 개정안의 시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1.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목표
 -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짜환자'를 방지하기 위함.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보험사기로 큰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사회적 기대심리를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가짜환자로 인한 보험료 지출을 줄임으로써 보험료 인상 방지 및 사회적 지출 감소 효과를 기대

-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의한 보험료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서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는 기존 병원인력을 활용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대형 병원에서는 이미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으나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자체 기준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기록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기재내용, 보관기간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제시
- 외출·외박부의 기록관리시 약간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나 경미한 정도일 것으로 판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가짜환자’로 인한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고 사회적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이나 비용은 기존의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하면 되는 것에 비해, 교통사고로 인한 가짜환자를 방지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은 클 것으로 기대됨.

* 자료 : 건교부 보도자료, 2007.11.06.

(박정희 연구원)

3.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증가 및 대응방향

<검토 배경>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생존 보장상품의 판매가 급증

- 고령화 사회 진전 및 소득수준 향상 등 노후 대비 보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노후생존 보장상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
 - 고령인구(65세이상) 비중 전망(통계청) : 9.1%('05년)→11.0%('10년)→12.9%('15년)
 - 생보사의 연금보험 판매규모 : 8.4조원('02년)→12.5조원('04년)→17.6조원('06년)
- 그러나, 향후 평균수명의 증가로 당초 예상과 달리 연금보험금의 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보험사의 경영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표 1> 경험생명표의 생존사망률

	'97~'02년	'03~'05	'06~현재
평균수명	68.39세	72.76세	76.40세

주) 보험개발원 경험생명표의 생존사망률(참조위험률) 참조

- 이 경우 보험사의 경쟁력과 신인도가 저하되고, 현행 노후소득 삼각보장체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한 축인 개인연금(민영보험)의 활성화가 저해되어 노후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
-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고령화 진전이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보험사 및 감독기구 차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분석〉

1.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현황

- 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정연령(예: 60세) 이후 생존시에는 사망시까지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가격산출 시의 추정

생존기간보다 장기간 생존시 보험사 부담이 크게 증가

가. 상품 구조

- 생명보험회사는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연금지급 규모를 추정하여 보험가격을 산출
 - 그 결과 보험가격 산출시 추정된 생존기간 보다 장기간 생존할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

(예시) 60세부터 매년 100만원씩 연금 지급, 예상 생존기간 20년 (80세 사망 가정)

실제 생존기간	생명보험사 손익
25년 (85세 사망)	500만원 손실 (100만원× 5년)
15년 (75세 사망)	500만원 이익 (100만원× 5년)

※ 은행, 손해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세계적격 연금상품은 향후 생존기간과 관계 없이 특정기간 동안만(예:10년) 연금을 지급하므로 수명연장에 따른 보험사의 추가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나. 판매 현황

방카슈랑스 이후 연금보험 판매는 매년 10% 이상 증가

- 의료기술 발달 및 핵가족화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한 보험수요가 커짐에 따라 연금보험 판매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
 - '03.8월 방카슈랑스 도입 후 일시납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연금보험 판매가 급증
 - '07.3월말 현재 연금보험의 적립금(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 규모는 75.1조원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적립금(221.0조)의 34.0%를 점유

<표 2> 연금보험 판매 및 적립금 추이

(단위 : 조원, %)

	FY'03		FY'04		FY'05		FY'06	
수입보험료	11.4	(22.6)	12.5	(23.3)	15.3	(25.0)	17.6	(26.4)
적립금	46.2	(31.7)	54.0	(32.3)	63.6	(33.4)	75.1	(34.0)

* () 전체 대비 비율

향후 30여년
뒤에는 매년
3~5천억원의
추가부담 발생
예상

2.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분석 (보험개발원)

□ 현재까지 판매된 연금보험의 대부분(약 70%수준)은 2015년 이후에 보험금 지급이 개시되므로 2015년 이후 연금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연금보험('06.3월말 기준)은 2008년부터 실제 지급할 연금 규모가 판매시점에서 예상한 지급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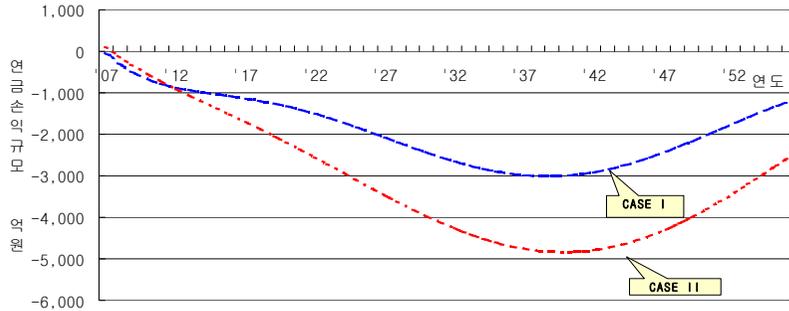
○ 2037~2042년에는 매년 3~5천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 현재 보험계약자의 평균생존 기간(76.4세)이 유지될 경우, 보험사의 연금보험금 추가지급 규모의 현재가치는 2.7조원 수준(할인율 5%)으로 추정 (Case I)

- 평균수명 증가효과*를 반영하면 추가 부담은 4.2조원(할인율 5%)으로 증가 (Case II)

* 과거의 연평균 수명증가율('00년~'05년, 0.8%)이 향후 1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15년 평균수명 82.5세)적용

<그림 1> 연금보험금 추가부담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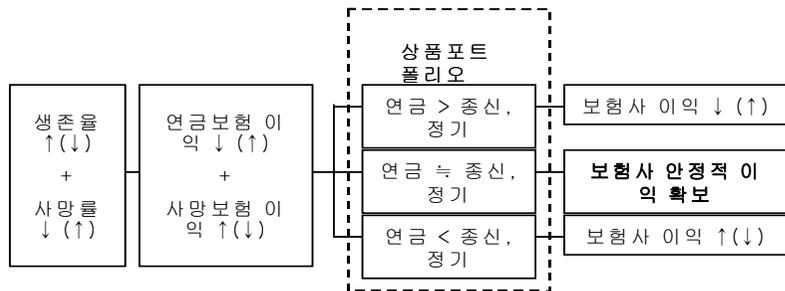
<향후 대응방향>

1. 보험사의 자체 대응노력 강화

가격산출
선진화 및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 자체
대응노력 강화
필요

- ① (보험가격 산출 선진화) 평균수명에 대한 보다 정교한 예측을 통해 예정 생존율과 실제 생존율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리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등 자구 노력 필요
- ②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생존을 담보하는 연금보험과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 또는 정기*보험을 적절히 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수명의 증감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

* 일정 보험기간(예: 10년)에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연금보험의 추가부담은 판매후 20~30년 경과시점에서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리스크 평가를 통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 필요

**책임준비금
적립강화 및
Cash Flow 방식
등 보험가격
산출 합리화
필요**

2. 감독기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① (책임준비금 적립 강화) 연금보험 책임준비금을 매 적립시점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산출토록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보험 판매 당시 적용된 생존율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립

○ 책임준비금의 적립시점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장래 평균수명의 연장 등이 책임준비금에 반영되어 향후 보험사의 생존리스크 발생에 사전적 대비 가능

⇨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도입시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을 변경할 예정

* '07.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관련 국제회계기준의 Discussion Paper를 발표하였고, 2010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

② (보험가격 산출 합리화) 3이원 방식의 현행 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험사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현행 보험료산출 방식은 연금보험 가입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수명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자간 연금 보험금에 형평성* 문제 발생

⇨ 보험사들이 연금보험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하여 보험가격을 산출토록 현금흐름방식* 등 보험료산출체계 개선 추진('09.4분기 전면도입 예정)

* 미래 투자계획, 계약자별 예정보험금 지급규모, 판매규모, 계약유지율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최적가정을 기준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보험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7.11.14.

(박정희 연구원)

4. FY07 상반기 보험모집조직 현황 및 경영효율 분석

**FY07 상반기
보험모집조직의
현황 및
경영효율 개선**

- 금융감독원이 FY07 상반기(07.4~07.9월)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의 현황 및 경영효율을 분석한 결과,
 - 보험계약 유지율*, 보험설계사 정착률**, 월평균 보험모집액 및 소득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1년,2년) 경과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
 ** 신규 등록 설계사중 1년 경과 후에도 정상모집 활동중인 설계사 비율

<보험모집조직 현황>

1. 보험설계사

**설계사의
차별화
전략으로
조직을 재정비**

- 보험설계사는 97.3월 44만명을 정점으로 06.3월말까지 매년 감소 추세*였으나, 07사업연도에는 소폭 증가
- * 저효율 설계사 구조조정, 방카슈랑스 도입, 홈쇼핑 등 신판매채널 확대 등에 기인
 - 이는 일부 중소형 생보사에서 영업확대 및 종합적인 재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성설계사를 적극 영입한 것에 기인
 - 손보사는 일부회사에서 비가동 보험설계사 조직을 정리함에 따라 07.3월말에 비해 감소하였음.

<표 1>보험설계사 변동추이

(단위 : 천명)

구분	03.3말	04.3말	05.3말	06.3말	07.3말	07.9말	(증감)
생보	148	142	137	124	132	137	5
손보	54	60	62	72	73	71	△2
합계	201	202	198	196	205	208	3

**복합보험상품에
대해 전문적인
남성설계사의
채용이 증가**

- 07.9월말 현재 생보사의 남성설계사 수는 약 3만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22.1%를 차지
 - 이는 복잡해지는 보험상품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재무컨설팅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또는 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 위주로 리쿠르팅을 실시하기 때문임.

<표 2> 생보사의 남성설계사 변동 추이

(단위 : 명, %)

구 분	'03.3말	'04.3말	'05.3말	'06.3말	'07.3말	'07.9말
남성 설계사수 (비중)	17,652 (12.0)	19,069 (13.5)	20,965 (15.3)	20,182 (16.3)	26,396 (20.0)	30,157 (22.1)

**외국계
남성설계사의
비중은 50%를
상회**

- 외국계 생보사의 남성 설계사 비중은 52.5%인 반면 국내 생보사의 경우 여성 설계사의 비중이 85.6%로서 차이를 나타냄.

<표 3> 국내 및 외국 생보사 남·녀 설계사 비중

(단위 : %)

구 분	06.3월말		07.3월말		07.9월말	
	남	여	남	여	남	여
국내 생보사	8.1	91.9	12.5	87.5	14.4	85.6
외국 생보사	52.7	47.3	52.1	47.9	52.5	47.5
계	16.3	83.7	20.0	80.0	22.1	77.9

2. 보험대리점

**대리점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리점
수는 소폭 감소**

- 07.9월말 보험대리점은 5.3만개로 07.3월말 보다 소폭 감소(1.1천 개, 2.1%↓)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손보사의 저효율 대리점 지속정비, 대리점 대형화 추세 등에 따른 것임.
 - 생보사의 대리점 수는 일부회사가 보험설계사를 전속대리점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07.3월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보험대리점 변동추이

(단위 : 개)

구 분	04.3말	05.3말	06.3말	07.3말	07.9말	(증감)
생 보	7,226	6,671	10,297	9,760	10,400	640
개인	5,602	4,664	7,719	6,921	7,356	435
법인	1,624	2,007	2,578	2,839	3,044	205
손 보	48,164	45,953	45,670	44,275	42,493	△1,782
개인	44,807	42,310	41,537	39,613	36,749	△2,864
법인	3,357	3,645	4,133	4,662	5,744	1,082
합 계	55,390	52,624	55,967	54,035	52,893	△1,142

생명보험회사의
상반기
판매실적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2.6%
성장하였음

<모집조직별 판매 실적>

- 생보사의 FY07 상반기 초회보험료 판매실적은 4조 9,9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216억원 증가(22.6% ↑)하였음.
- 이는 FY07 상반기에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판매실적(2조 5,922억원, 전체 실적의 52%를 차지)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5> 모집형태별 신규판매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FY06 상반기	구 성 비 (a)	FY07 상반기	구 성 비 (b)	증감 (b-a)	FY06 상반기	구 성 비 (a)	FY07 상반기	구 성 비 (b)	증감 (b-a)
임직원	8,540	21.0	5,945	11.9	△9.1	21,018	14.8	19,917	12.4	△2.5
설계사	17,729	43.5	22,429	44.9	1.4	49,057	34.7	55,441	34.4	△0.2
대리점	2,622	6.4	4,579	9.2	2.7	63,419	44.8	74,804	46.5	1.7
방 카	11,844	29.1	16,997	34.0	5.0	6,317	4.5	8,721	5.4	1.0
중개사	0	0.0	1	0.0	0.0	1,188	0.8	1,323	0.8	0.0
공동인수	0	0.0	0	0.0	0.0	560	0.4	754	0.5	0.1
합 계	40,735	-	49,951	-	-	141,559	-	160,959	-	-

주)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실적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
판매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3.7%의
성장률을
기록함**

- 손보사의 원수보험료 판매실적은 16조 9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 9,400억원 증가(13.7% ↑)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부 중·소형 손보사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및 대리점 판매실적이 고르게 성장한데 기인함.

<경영효율 분석>

1. 보험계약 유지율

- 보험계약 유지율은 07.4월부터 완전판매 유도를 위해 표준상품설 명서 제도를 도입
- 13회차 및 25회차 계약유지율이 FY06보다 각각 0.7%p, 1.5%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6> 보험계약 유지율 변동 추이

(단위 : %, %p)

**13회차 및
25회차 보험
계약 유지율은
각각 소폭
개선되었으며,
설계사
정착률도 매년
개선되는
추세임**

구 분	FY02	FY03	FY04	FY05	FY06 (a)	FY07 상반기(b)	(증감) (b-a)
13회차	79.3	73.6	79.0	79.3	80.9	81.6	0.7
25회차	65.7	62.5	58.3	65.7	67.7	69.2	1.5

2. 보험설계사 정착률

- FY07 상반기 보험설계사 13월차 정착률은 42.4%로 FY06 41.3% 대비 1.1%p 증가하여 FY03이후 매년 개선되는 추세임.
- 이는 장기재직 우수 보험설계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남성·경력직 채용 등 지속적인 정착률 제고 노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표 7> 보험설계사 13월차 정착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FY02	FY03	FY04	FY05	FY06 (a)	FY07 상반기(b)	(증감) (b-a)
생 보	30.8	31.2	33.7	36.1	39.7	42.0	2.3
손 보	43.0	39.7	38.8	39.5	43.1	42.8	△0.3
합 계	33.6	33.1	35.3	37.8	41.3	42.4	1.1

보험모집조직
생산성에
있어서도
설계사 1인당
월평균 모집액
및 월평균
소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3. 보험모집조직 생산성

가. 보험설계사

- 보험설계사의 정예화 및 전문직화에 따라 보험설계사 1인당 월평균 모집액 및 월평균 소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FY07 상반기 월평균 모집액은 2,555만원으로 전년(2,444만원)보다 111만원(4.5% ↑) 증가하였으며,
 - 월평균 소득도 305만원으로 전년(292만원)보다 13만원(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설계사 1인당 생산성 추이

(단위 : 만원)

구 분	FY03	FY04	FY05	FY06	FY07 상반기	(증감)
월평균 모집액	1,944	1,984	2,161	2,444	2,555	111
월평균 소득	238	250	270	292	305	13
*외국계 생보사	326	405	507	492	511	19

* 외국계 생명보험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511만원으로 전년(492만원)보다 19만원(3.9%) 증가하였음.

나. 보험대리점

**FY07 상반기
대리점의
월평균소득은
6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저능률 대리점의 구조조정 등 대리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따라 대리점의 월평균 모집액 및 월평균 소득이 매년 증가
- FY07 상반기 대리점의 월평균 모집액 및 소득은 FY06 보다 각각 15.2%, 15.8% 증가하였으며, 월평균소득은 601만원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6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대리점 생산성 추이

(단위 : 만원)

구 분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상반기	(증감)
월평균모집액	1,888	2,189	2,516	2,895	3,366	3,876	510
월평균소득	276	298	363	429	519	601	82

*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7.12.13.

(박정희 연구원)

5. 보험업법 개편방안 마련

- 지난 '07.8월 설치된 보험업법 개정 자문T/F의 검토를 거쳐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개정 배경>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금융업권별 발전 기틀이 마련

- 지난 07.7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은행·증권·보험의 3분 된 금융업권의 기본 틀 속에서 경쟁과 균형 속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발전 기반은 이미 마련이 되었으며, 금번에 보험업법 개편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특히, 우리 보험시장은 이미 세계에서는 7위 수준, 아시아에서는 2위 수준으로 선진국에 근접해 있으나, 상품개발 능력이나 자산운용 역량도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
 - 따라서, 금번에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이 향후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세계화·선진화를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기본 방향>

보험산업도 보험업법 개편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 금융선진국의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보험업법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국내 보험회사가 대형화·종합화를 통해 Global Player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역량 제고를 통해 단순한 자금 중개기능에서 탈피, 장기자금의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장기채 수요자로서 금융시장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투자자로 육성

**금융선진국의
표준에
부합하는
보험업법
체계를 마련**

-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판매채널 제도를 전면 혁신하여 고객의 one-stop 복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o 아울러, 소비자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o 개인, 기업, 금융기관 등 사회의 다양한 리스크 헷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종 위험 흡수자(risk absorber of last resort) 이자 종합리스크 관리 산업으로 도약

<주요 내용>

1. 보험회사 대형화·종합화 유도

가. 비은행 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 검토 : 심층검토 과제

[현황 및 문제점]

**단일화된
규제를
비은행지주회사
에 대해서는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은행·보험·증권 구별없이 단일화된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규제함에 따라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 o 보험업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로 규정하고, 15% 미만의 주식소유는 통상적인 자산운용으로 보아 규제가 없음.
- o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소유했던 기존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되어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장애

[개선]

-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보험, 증권)에 대해서는 소유(지배)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 o 자회사·손자회사의 업종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

□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엄격히 준수

○ 금산분리원칙 근간 유지, 상호·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통제

*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실태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 하되 우리나라 금융법 규제체계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08년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나. 회사간 합병시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규제 완화

[현행]

□ 보험회사의 과도한 자회사 주식 소유로 인해 자회사의 부실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회사 주식 합계액을 총 자산 및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규제(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 상기 비율규제를 적용으로 합병을 위한 주식의 추가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이는 보험회사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개선]

□ 합병을 전제로 하는 자회사 주식 소유는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규제에서 제외하여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

○ 단, 합병계획서 등을 금감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일정기간(예:1년)내 합병되지 않는 경우 주식처분 명령

다. 투자자문·일임업 겸영 허용

[현행]

□ 보험회사는 투자자문·일임업 겸영 제한으로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 및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

회사간 합병시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규제에서
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

[개선]

보험회사의 투자자문 및 일임업 겸업 업무 허용함에 따라 고객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
 - 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 수행

[기대효과]

- 고객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바로 투자컨설팅을 받게 되어 one-stop service 가능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와 장기간 거래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
- 또한, 장기 자산운용 Know-how를 살려 고객의 평생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투자컨설팅이 가능

라. 지급결제 업무 겸업허용 검토

[현행]

- 금융업권 중 보험회사에만 지급결제 업무의 겸업이 제한됨에 따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

[개선]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방안을 검토

-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보험회사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09.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추진경과를 보아가며 보험회사에도 허용하는 방안 검토

[기대효과]

- 보험회사에도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공과금 납부, 보험료 지급·보험금 수령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마.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현행]

**자통법 체계에
맞춰** □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 보험회사 소유
의 인력·자산을 활용하는 업무를 열거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

[개선]

□ 자통법 체계에 맞춰 부수업무의 정의를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
서 허가받은 보험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 허용
범위를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기대효과]

□ 보험회사의 인력·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비용절감 및 새로운 수익원 확보 가능

2. 보험회사 업무 자율성 확대

(1)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가. 자회사 소유규제 개편

[현행]

□ 승인·신고 자회사 소유 대상 업종을 Positive 방식으로 열거, 승
인요건도 감독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

[개선]

**자회사의
소유규제를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

□ 자회사 소유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 건전
성 및 계약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 일반적인 비금융회사는 현행대로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되, 나
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보험
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신고·승인대상으로 분류

보험동향 2007년 겨울호

나.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현행]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허용**

-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유형을 열거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자산운용을 제한
- 또한, “제3자를 위한 보증금지” 규제로 인해 신용파생상품 중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CDS 등의 취급을 제한

[개선]

- 파생상품 투자 유형을 열거하는 현행 Positive 방식을 폐지하고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
- “제3자 보증금지”의 예외범위에 CDS등 보증성격을 가지는 신용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보험회사의 CDS 거래를 허용
- 다만,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래한도(현행 : 총자산 3%)를 엄격히 규제

[기대효과]

-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다양한 파생상품의 출현이 예상되며 이를 활용한 자산운용이 가능
- 특히, CDS 계약의 경우, 보장매입자에게 준거자산의 채무불이행,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risk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고유한 risk-taking 업무의 일부라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

**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외화자산
운용비율
규제를 예외로
인정**

다. 기타 자산운용규제 완화

- ① 외화자산운용규제 완화

[현행]

-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운용 비율을 총자산의 30%로 규제

[개선]

- 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위험이 헤지된 것인 만큼 외화자산 운용비율 규제(30%)의 예외로 인정
 - 외화표시 보험상품의 경우 규제이행을 위해서는 외화자산을 원화로 전환시켜야 하므로 오히려 불필요한 환리스크에 노출
- ② 특별계정 자금차입 허용 확대

계정간의
단기자금차입을
허용하여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제고

[현황]

- 계정간의 자산편출입 및 자금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일부계정의 일시적인 소규모 자금 부족 발생시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문제점

[개선]

- 일반계정으로부터의 단기자금차입(콜론 등)을 허용하여 계정의 자산운용에 유연성 제고
- (2) 보험상품 정의 신설 및 상품개발 절차 자율화

가. 보험상품 정의 신설

[현황]

보험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

-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금융 상품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함.

[개선]

- (보험상품 정의 신설) 일반적 정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명시적 포함·명시적 제외를 통해 구체성을 확보

**보험상품과
직접 연관이
있는
파생상품에
한해 겸영업무
허용**

□ (장외파생상품의 제한적 취급 허용)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장외 파생상품 중 보험상품과 직접관련이 있는 상품에 한해 보험회사 겸영업무로 허용

○ 파생상품 취급 허용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risk를 반영하는 등 보험회사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기대효과]

□ 보험회사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개인, 기업, 금융기관 등 사회의 다양한 리스크 헷지가 가능한 상품을 제공

○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상품을 이미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집적된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파생상품의 개발이 가능

나. 보험상품 개발 절차 자율화

[현황]

**상품심사
규제를
신고상품-자율상
품 체제
이원화로**

□ 보험상품에 대해 3중 확인절차(①선임계리사 확인, ②보험개발원의 요율확인, ③금감원 심사) 및 불명확한 보험 상품 구분·심사 기준으로 신속한 상품개발을 저해

[개선]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효율화**

□ 상품심사 규제를 전면 개편하여 “신고상품- 자율상품” 체제로 이원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3. 판매채널 제도 혁신

[판매채널제도 개선 기본방향]

□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신판매 채널(보험 판매플라자)을 도입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판매채널
다양성을 제고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

- 채널별로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판매채널의 다양성을 제고,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여 판매제도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

가. 보험판매플라자 제도 신설

[현행]

- 기존 판매채널은 공급자 위주로 개발된 상품을 단순히 소비자에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상품 출현을 저해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
반영하는
보험판매플라자
제도를 신설**

-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 제도를 신설
 - 보험판매플라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협상권 등 업무·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영업보증금 및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
 - 보험회사가 협상에 의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게 되어 보험회사간에 보험상품 가격경쟁이 본격화
 - 보험료 협상범위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요율과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경험요율간의 차이로 제한하여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대리점 및
설계사의
교육과정을
의무화하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나. 대리점·설계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현행]

- 대리점·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주력 채널이면서도 전문성·책임성이 미흡하여 방카슈랑스 등 다른 채널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 설계사 등의 교육과정을 법령으로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차모집 시행('08.8월), 펀드판매 권유 자격 확대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

다.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현행]

- '08.4월부터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기존 저축성 보험 이외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 보험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확대, 설계사 실직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보완 필요성 제기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되, 불완전판매나 설계사 실직 등의 문제점을 방지

[개선]

-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정책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되,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

4.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가. 적합성 원칙 도입

[현행]

- 투자형 보험 상품의 판매 증가하고 있으나, 적합한 보험상품 판매 및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 및 권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개선]

- 보험상품 판매 권유시 소비자의 소득, 보험계약의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

나.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현행]

- 보험계약과 관련한 담보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저하

**보험판매시
주요사항을
설명, 계약시
단계별 안내
제도를 도입**

[개선]

-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보험업법에 근거 신설
 - o 보험계약 단계별로 주요 진행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정보 제공하는 보험계약 단계별 안내 제도 도입

다. 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 차등화

[현행]

- 현행 보험업법은 기업 등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분석능력이 있는 전문소비자와 일반소비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호장치를 적용

**보험소비자를
구분하여
소비자 보호를
차등화**

[개선]

-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설명의무 등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 전문소비자(금융기관, 상장기업 등)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적용 배제

라.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현행]

- 보험상품의 허위 판매광고 및 과장된 방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광고시 준수사항과 이의 위반시 제재근거는 미비

**허위 판매광고
및 방송에 대한
광고기준을
법제화**

[개선]

- 자본시장통합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체계를 준용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광고기준을 보험업법상 법제화

마. 기초서류 준수 의무 신설

[현행]

**기초서류 준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위반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

- 현재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제출의무는 있으나 신고·제출된 기초서류의 준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험금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은닉하는 사례 발생

[개선]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조항 신설을 통해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에 대한 의무를 부여
 - o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 신설

바. 기타 제재조치 신설 및 강화

과징금 신설, 범위반사실을 공표, 과태료 강화, 임직원 제재 강화 등

5. 보험산업 인프라 선진화

가. 보험사기 정의 및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

**보험사기 정의
및 금지의무
신설 및 인식과
일반 예방효과
제고**

[현행]

- 보험사기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정의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부재

[개선]

- 보험사기 정의 및 금지의무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일반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금감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및 현재 운영 중인 '보험조사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보험조사의 실효성을 제고

나. 유사보험 감독 강화

[현행]

5대 유사보험에
대해서도
감독체계
일원화 토대를
마련

- 우체국보험 및 4대 공제(농협·금고·수협·신협)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민영보험과 기능상 동일하나, 상이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체계로 인해 계약자보호 및 불공정경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개선]

- 5대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의 적용을 추진함으로써 유사보험 감독체계 일원화의 토대 마련

다. 유관기관 기능 재조정

유관기관의
기능을 재조정

- 생·손보 협회는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 업무 중 일부 집행업무(모집종사자 등록업무 및 조사업무)를 보험협회에 이관
- 화보험회는 화재보험 공동인수의 단계적 폐지 추진, 화재보험의 재난보험으로의 확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화보험회의 합리적 기능 재조정 추진 검토
- 보험개발원은 우선적으로 보험개발원내 보험연구소를 준독립적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보험개발원을 "보험연구원(가칭)"으로 개편하여 연구기능을 주업무로 조정

라. 보험정보의 보호 및 이용

**원활한
보험금지급
등을 위해
예외적
동의요건을
완화**

[현행]

- 보험업의 경우 보험계약의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원활한 보험금지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동의요건을 완화할 필요

[개선]

- 정보주체의 동의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

마.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개선

**현행
손해사정사
구분 외에
통합형
자격제도를
추가**

[현행]

- 손해사정사를 1종에서 4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액 산정시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보상지연, 민원유발 등 문제점 발생

[개선]

- 현행 4종 손해사정사 구분 외에 통합형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제도를 추가

바. 보험업 법령·규제 체계 명확화

[현행]

-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포괄위임 형식의 규정이 일부 존재하고, 의무이행기한이 불명확하여 규제예측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개선]

보험업 법령 및
규제 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근거
마련

- 법령상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하위규정에 대해 법령화 또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이행기간이 '지체없이' 등으로 규정된 내용은 대해 '7일', '15일' 등 기한을 구체화

<향후 추진계획>

- 「보험업법 개정안 요강」을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08년 상반기중 관련 입법절차를 추진

*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08.4월) 이전 의원입법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

- 보험업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잠정) 이후 시행

* 가급적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시기('09.2월)와 일치되도록 추진

*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07.12.27.

(박정희 연구원)

6.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배경>

최근
광고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도
대응노력을
경주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진화·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등 광고를 통하여 형성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상품내용이 상이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보험상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지침을 운영하거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독상의 대응노력을 경주

<표 1> 각 국의 감독지침

구 분	주요 감독조치 내용
미 국	- 보험광고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 “오직, 필수적인, 최소한” 등의 문구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 (뉴욕주)
영 국	- FSA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준칙(COB, ICOB)에 의거 규제 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자동차보험 및 가정종합보험 관련 보험료 절감 광고에 대해 점검 * 07.1월 점검 결과 45%의 광고가 부당(misleading)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요구하고 07.4월 다시 점검한 결과 6%의 광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
일 본	- 금융청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감독지침을 개정(06.4) ①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광고 (예 : 면책, 감액조건 등을 작게 표시) ② 유리한 거래조건과 제한조건을 같이 표시하지 않는 광고 (예 : 짧은 층의 보험료만 예시)

<주요 검토내용>

주요

검토내용은
첫째
보험협회 주관
광고심의
자율규제 강화

- 보험협회 주관의 광고심의 자율규제를 강화
 - 실제 상품내용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인식이 일치하도록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눈높이 수준으로 광고심의기준을 강화
 -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
 - 현재는 변액보험만 사전심의 대상이나,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
 - 홈쇼핑 판매방송의 경우 생방송인 점을 고려하여 사후심의
 - 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언론계 인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협회 광고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협회에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

둘째,
감독기구의
모니터링 강화,
법령개정 추진
등임

- 금융감독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를 마련 (법령개정 추진)
 - 보험상품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보험협회의 광고심사기준이 시장상황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검토
 - 보험상품 판매 광고 관련 보험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를 예방
 - 홈쇼핑 등의 광고내용과 보험상품 내용 일치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 및 통신판매시 필수 안내사항의 준수 여부 등도 점검
 -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장광고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2007.10.2.

(김세중 연구원)

7. 2007년 1월~9월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2007년 1~9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보험관련
민원은 52.3%를
차지

- 2007년 1월~9월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 48,6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3,601건)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중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인터넷 및 서류민원은 총 36,4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152건) 증가함.
- 권역별 비중을 보면 보험 민원이 전체민원처리의 52.3%, 은행·비은행 민원이 43.7%, 증권·투신 민원이 4.0%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권역별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06년 1월~9월		'07년 1월~9월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인터넷 및 서류	34,321	76.1(100.0)	36,473	74.9(100.0)	2,152	6.3
은행·비은행	16,907	37.5(49.3)	15,926	32.7(43.7)	△981	△5.8
보 험	16,243	36.0(47.3)	19,090	39.2(52.3)	2,847	17.5
증권·투신	1,171	2.6(3.4)	1,457	3.0(4.0)	286	24.4
Q & A	10,754	23.9(100.0)	12,203	25.1(100.0)	1,449	13.5
은행·비은행	6,041	13.4(56.1)	6,301	12.9(51.6)	260	4.3
보 험	3,604	8.0(33.5)	4,846	10.0(39.7)	1,242	34.5
증권·투신	1,109	2.5(10.3)	1,056	2.2(8.7)	△53	△4.8
계	45,075	100.0	48,676	100.0	3,601	8.0

보험부문 중
보험모집
부문이 3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보험 부문은 보험모집(5,700건), 보험금 지급(3,324건) 및 보험금 산정(3,020건) 민원 비중이 각각 30.2%, 17.6% 및 16.0%를 차지하였음.

○ 증가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모집관련 민원 중 상품설명 불충분, 3대 기본* 지키기 불이행 관련 민원이 증가하였음.

*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기, 중요한 약관 내용 설명하기,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전자서명 포함)하기

<표 1> 보험권 인터넷 및 서류민원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06년 1월 ~ 9월		'07년 1월 ~ 9월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보 험 모 집	4,194	26.3	5,700	30.2	1,506	35.9
보 험 금 지 급	3,044	19.1	3,324	17.6	280	9.2
보 험 금 산 정	2,602	16.3	3,020	16.0	418	16.1
계약 성립·실효	1,034	6.5	1,429	7.6	395	38.2
장해·상해등급 적용	1,259	7.9	1,054	5.6	△205	△16.3
고지 통지 의무	892	5.6	914	4.8	22	2.5
기 타 ^{주)}	2,923	18.3	3,435	18.2	512	17.5
계	15,948	100.0	18,876	100.0	2,928	18.4

민원상담 중
보험권의
비중은 35.2%를
기록

□ 동 기간 중 금융감독원의 민원상담은 총 163,7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13,035건) 증가하였음.

○ 권역별 비중은 은행·비은행 41.9%, 보험 35.2%, 증권·투신 4.1%, 기타* 18.8% 차지함.

*자료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2007년 1월~9월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2007.10.17.

(김세중 연구원)

8.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선

<개 요>

금감위는
'보험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함

- '07. 10. 12(금)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함.
 - '99년부터 도입·운영중인 현행 EU방식 지급여력제도는 재보험 출재 인정범위 등 일부사항에서 EU기준보다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 투자형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여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변액보험에 있어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발행액도 일정범위내에서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수단을 확대하였음.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첫째,
재보험에 대한
지급여력제도
강화

- 재보험에 대한 지급여력제도 강화
 - 현재의 경우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출재할 경우 그만큼 보험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확충 없이도 지급여력비율을 제고가 가능하였으나,
 - 지급여력비율 제고 목적의 재보험 출재를 억제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담보능력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재보험인정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함.
 - 재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강화하여 위험전가기능이 없는 재보험계약은 재보험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둘째,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
반영

-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 반영
 - 현행 규정상 변액보험은 투자성격만을 감안하여 변액보험의 보험리스크를 지급여력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최저보장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산정됨에 따라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보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급여력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반영하도록 개선함.

셋째,
신종자본증권
의 지급여력
인정 등임

- 신종자본증권의 지급여력 인정
 - 국제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을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으로 인정
 - *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유가증권으로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배당 또는 이자지급 면제, 일반채권보다 후순위 조건으로 발행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
 -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 현행규정상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지급여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본조달 수단이 제약
 -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 다양화 차원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액도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함.
 - 신종자본증권 인정요건 및 인정한도 등은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함.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선, 2007.10.12.

(김세중 연구원)

9.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사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를 제시

- 【사례 1】 50,000m²(5ha)의 사과 농사를 짓는 정대철씨(54·경북 의성 옥산)의 경우 지난 3월 대구경북농금조합 관계자의 권유를 받고 339만 원(자기부담금)을 들여 농작물재해보험(주 계약 우박과 태풍)을 가입함.
 - 우박피해를 대비한 339만 원의 보험료가 정씨의 큰 피해를 막아주었고, 결국 보험료의 54배인 1억8,392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됨.
 - 정씨는 “매년 1만 상자(20kg)를 수확해 2억 원의 비용을 빼면 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올해 대형 우박으로 90%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에서 재해보험 아니었으면 큰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함.
- 【사례 2】 2002년 월드컵과 함께 귀농한 6년차 농업인 김중화씨(46·경북 청송 현동)는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과 우박에 대비해 재해보험(자기부담금 39만 원)을 가입함.
 - 김씨는 “우박 피해가 났던 6월 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대책이 없는 농가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고 말함.
 - 현재 김씨가 수령할 보험금은 모두 3,493만 원(영농규모 18,000m²)으로 자신이 부담한 보험금에 비하면 모두 87.5배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임.
- 【사례 3】 한국농업경영인청송군연합회 정용국 사무국장(40·경북 청송 현동)은 청송군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30,000m²(3ha) 규모에 젊고 기술영농을 펼치는 선도적인 농업인임.

농림부는 총
614억 4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정 사무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주위로부터 재미없는 일에 왜 돈을 쓰냐는 편견을 들었지만 올해는 주위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으며 아마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면 누구나 가입할 것이다”고 말함.
- 농림부는 17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2만8,758농가 중 자연재해를 입은 7,184농가에게 모두 614억4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사과와 배, 포도, 단감, 뽕은감, 감귤, 복숭아 등 7개 품목에서 올해 밤과 참다래, 자두 등을 포함해 모두 10품목으로 확대하였음.
 - 현재 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은 배(58.6%)와 사과(55.9%)가 가장 높고, 감(뽕은감)(28.2%), 복숭아(9.8%), 포도, 감귤 순임.
 - 내년에는 콩과 감자 등 5개 품목, 2009년부터는 벼와 시설채소류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임.

*자료 : 농림부, “우박으로 명든 농심,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극복했다.”, 2007.12.17.

(김세중 연구원)

해외보험 동향

1. 미국동향

1) 2008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전망

- 미국 III(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는 최근 미국손해보험 산업의 2008년 전망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손해보험산업은 보험료 성장은 감소하나 대재해손실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증대로 수익성은 양호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함.

〈보험료 성장 : 소폭 감소〉

2008년 미국
손해보험원수
보험료는 소폭
감소 전망

- 2008년의 원수보험료 성장은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반 성장이 2.4% 감소했던 1943년 이후 첫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임.
- 한편, 2007년의 경우 성장이 정체(0.0%)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6년 초기 조사 때의 추정치(1.5%)보다 낮게 나타남.
- 보험료 성장은 2002년 15.3%를 정점으로 꾸준히 악화되었는데 이는 주로 가계성보험과 기업성보험 대부분에서 연성시장을 보인 가격환경에 기인함.
- 또한 경제성장 둔화, 정부가 운영하는 (재)보험사로의 보험료 누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자가보험, 캡티브와 대재해채권을 포함한 대체적 위험전가수단에 대한 관심이 보험료 감소에 영향을 미침.
- 예외적으로 허리케인에 노출된 연안지역을 담보하는 재물성보험에서만 보험회사들은 리스크와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과거의 보험료
성장 사이클
경험상
2008년은
보험료 성장의
저점

- 과거의 보험료 성장 사이클로 볼 때 주기적 정점에서 주기적 저점까지의 기간은 5년에서 6년이었고 2008년에 저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일치함.
 - 1970년대 중반의 경성시장에서 보험료성장은 1975년에 정점에 도달했으며, 1981년 저점을 치고 1985~1986년에 다시 한 번 정점에 도달했음.
 - 다음 저점은 1992년이었으며, 이후 8년간 매우 낮은 성장을 경험함.
 - 현재의 보험료 성장패턴은 1990년대 후반 연성시장을 연상시키는데 당시 손해보험산업은 1997년 2.9%, 1998년 1.8%의 저성장을 기록하였음. 동 시기에는 수익 측면에서도 악화추세를 보여 합산비율이 1997년 102%에서 2001년 116%까지 상승함.
 - 보험구매자 입장에서 손해보험의 저성장은 혜택인데,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험비용이 소득수준이나 GDP성장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이득을 볼 것이기 때문임.
 - 전체적으로 경제규모대비 손해보험료 비중은 2007년의 4.9%에서 2008년 4.3%로 축소될 전망이다.
- 보험료성장은 거의 정체에 가깝지만, 이익과 이익률(ROE)은 다양한 요인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2006년 및 2007년 대재해손실의 감소는 보험사업자에게는 수익성 개선을 가져다 주었으며, 많은 보험회사들은 이를 보험금 지급능력 확충과 미래를 위한 재투자를 실시하는 기회로 활용함.
 - 2007년 이익의 대부분은 주주배당금 지급이나 자산주 매입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잉여금(보험금지급능력의 척도), 대재해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 등에 사용되는 등 보험영업을 위해 재투자될 것임.
 - 개선된 자본능력은 보험사들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하여 높아진 자본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낮은
보험료성장에
도 불구하고
합산비율은
양호할 전망

<합산비율 : 양호>

- 2008년 합산비율(보험료대비 손실과 비용의 비율)은 2007년 추정치인 93.8%보다 악화된 97.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추정치인 93.8%는 1920년 이후 88년 동안 언더라이팅 성과로는 12번째로 양호한 수준으로 기록될 것이며, 2006년에는 92.7%로 6번째로 좋은 성과를 기록했던 바 있음.
 - 2007년, 2008년 합산비율이 모두 100% 이하로 전망됨에 따라 1978년 이후 3번째, 4번째로 손해보험산업에 언더라이팅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2008년 전망은 대재해손실을 평균 수준으로 가정한 결과이며, CAT 손실이 2004/2005년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언더라이팅 이익은 상당히 하락할 것임.
- 언더라이팅 성과는 2006년, 2007년 모두 견실한 수준을 보이겠지만, 2008년 3.5%p의 합산비율 악화 전망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합산비율이 100%에 근접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추세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자기자본수익률(ROE) 성과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합산비율이 100.7%로 나타났던 2005년의 경우 실제 ROE는 10.4%에 불과했음.
 - 2008년 언더라이팅 이익은 보험사들이 자본비용을 충당하는데 충분할 것이며, ROE는 11~12%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
 - Fortune 500 수준의 ROE(13~15% 범위)에 도달하려면 언더라이팅 부문에서의 기여가 중요할 것임.

ROE 수준을
높이는 데는
언더라이팅
부문의 성과가
중요

〈시장환경 : 우호적이나 다양한 도전요인이 존재〉

2008년은
대재해손실
가능성 및
제도적 환경
불안요소 등이
도전요인으로
존재

- 2008년 수익하락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성은 대재해손실에 대한 리스크이며, 산업감독자들은 2008년 주요 관심사로 가격결정과 언더라이팅 규율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불법행위로 인한 비용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소송, 가계성 및 의료과실 부문의 클레임 증가와 더불어 보험반대론자의 활동 규모 증가 등도 우려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08년은 법적·제도적 환경 또한 많은 불안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2007년은 국회의사당에서 폭넓고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각종 청문회가 개최되었던 한 해임.
- 주제의 범위는 테러리즘에서 자연재해위험과 신용에 기초한 보험기록 등에 대한 선택적 연방 특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몇몇 주는 개별적으로 특정 언더라이팅 기준을 사용하는 보험회사의 권리에 대하여 공격을 지속하였음.
- 또한,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테러보험법의 기간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이 미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어 기업정보보험시장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음.

*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SPECIAL REPORT: Earlybird Forecast 2008", December 17, 2007.

(김진익 선임연구원)

2) 종업원복지금부선택조사 : 기업의 관행과 선호

- 미국 컨설팅회사인 Mercer사는 미국에서 기업주가 부담하는 자발적인 단체금부항목의 선택 시 관행과 선호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함.
- 2006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비급여성 종업원복지금부를 결정하는 1,000명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
 - 보험회사 또는 금부컨설팅기업은 표본에서 제외되었으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또한 포함되지 않음.

<금부제공자의 선택>

- 종업원금부제공사 현황
 - 자발적인 종업원금부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기업주들은 점차 이미 알고 있는 공급자와 일하기를 선호함.
 - 단 15%만이 기존 금부제공업자가 아닌 새로운 공급자를 선호한다고 함.

기업들은
기업복지금부
선택에 있어
기존거래금융
서비스와
거래를 선호함

<표 1> 금융서비스사 선호

	2002년	2006년
기존 종업원금부상품가입 금융서비스사	55%	65%
기존에 종업원금부상품이 없는 금융서비스사	24%	15%
상관없음.	21%	20%

- 비록 사명인지가 중요한 제공자선택의 요소이지만 자문가의견도 기업주에게는 중요함<표 2>.

<표 2> 금융서비스사의 중요성(아주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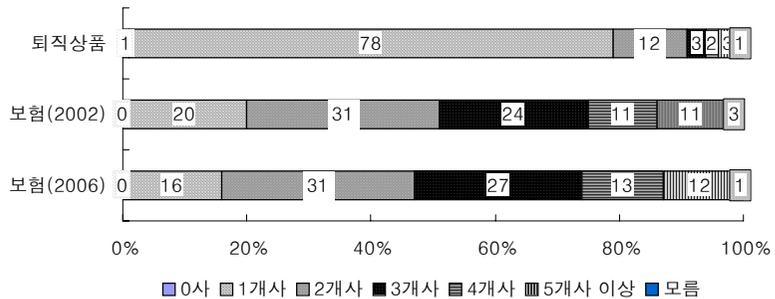
사명과
자문가의
권유가 선택에
있어 중요함

	2002	2006
사명인지도	55%	61%
자문가권유	59%	60%
기존관계	38%	41%

- 기업주들은 전형적으로 여러 경로로 보험급부를 받음(<그림 1>, <표 3>).
- 약 80%의 기업들이 한군데의 금융서비스사로부터 모든 퇴직금부서비스를 받고 있음.

퇴직상품의
경우 한군데와
거래비중이
높음

<그림 1> 이용된 금융서비스사의 수



<표 3> 이용된 금융서비스사의 수(보험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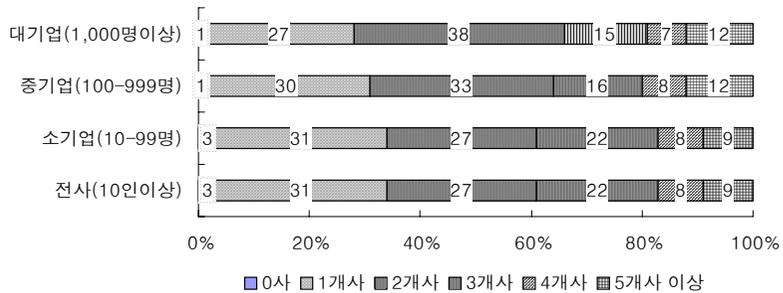
	2002년	2006년
소기업(종업원 10-99명)	3	3
중기업(종업원 100-999명)	4	4
대기업(종업원 1,000명이상)	7	7
모든 기업	3	3

□ 자문가이용 현황

- 약 1/3의 기업이 종업원복지급부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있어 하나의 자문가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회사들은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그림 2>).

종업원복지급
부프로그램을
설계시
이용하는
자문가수는
적음

<그림 2> 이용된 자문가의 수



- 이러한 추세는 조직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크지는 않음.
- 기업주의 선호를 보면, 2/3 이상이 모든 분야의 특정급부 전문가보다 모든 생명/건강보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자문가를 선호함(<표 4>).

<표 4> 자문가 선호(단일 자문가를 선호하는 비율)

	종신과 건강보험	퇴직과 저축보험
소기업 (종업원 10-99명)	68%	79%
중기업 (종업원 100-999명)	65%	70%
대기업 (종업원 1,000명이상)	71%	62%
모든 기업	68%	77%

<제도 선택, 커뮤니케이션>

- 자발적 급부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업주의 니즈와 선호는 다양하지만 발행보증(건강상태와 상관없이 발행보증)의 이용가능성이 현장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인임(표 5).

발행보증옵션
은 중요한
선택 요인

<표 5> 복지혜택 고려 시 중요사항

	2002년	2006년
발행보증	84%	83%
이관성	67%	61%
설계사권유	59%	54%
적극적 참여	*	54%

주 : * 새로운 질문사항으로 이전자료는 없음.

- 종업원의 급부선택 제시방법
 - 일단 기업이 새로운 자발적 복지프로그램을 후원하기로 동의했다면 내부적으로 복지혜택을 알리고 등록을 준비해야함.
 - 약 절반의 기업이 현재 복지혜택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나(<표 6>)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님.

약 절반의
기업이
복지혜택
박람회를
개최함

<표 6> 기업후원의 복지박람회

소기업(종업원 10-99명)	49%
중기업(종업원 100-999명)	64%
대기업(종업원 1,000명이상)	67%
모든 기업	51%

- 기업주들은 사전통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장등록 전 적어도 3주전에 통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7>).

<표 7> 복지혜택 등록 전 사전통지

	모든 기업	소기업 (10-99명)	중기업 (100-999명)	대기업 (1,000명이상)
일주일 이하	2%	3%	1%	0%
1주~2주	17%	17%	16%	16%
3주~4주	53%	54%	45%	32%
5주~8주	15%	14%	22%	40%
8주 이상	8%	7%	2%	11%
복지혜택에 따라 다양	5%	5%	4%	1%

- 내부의 전단지/통지서, 임금고지서, 이메일, 그리고 포스터를 포함한 몇 가지 방법이 자주 이용되지만 직원회의는 자발적 복지프로그램 등록을 통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임(<표 8>).

회의는 가장
일반적인
복지급부
통보방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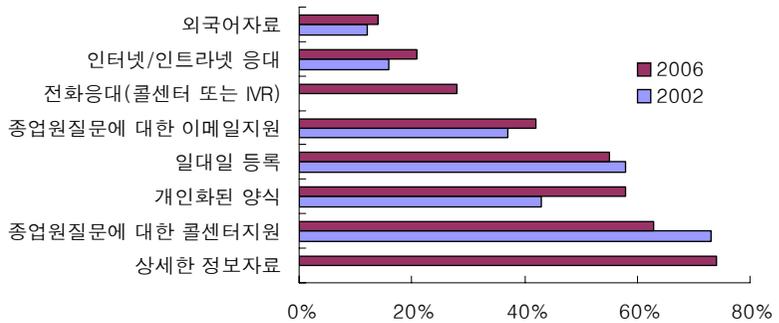
<표 8> 기업규모별 복지급부 통보방법

	모든 기업	소기업 (10-99명)	중기업 (100-999명)	대기업 (1,000명이상)
회의	31%	32%	21%	23%
사무실전단지/ 우편	21%	20%	22%	58%
임금고지서	19%	17%	30%	11%
이메일	18%	15%	33%	47%
포스터	15%	14%	25%	13%
가정전단지/ 우편	6%	5%	11%	35%
인터넷	2%	1%	12%	10%
인트라넷	2%	2%	5%	11%
기타	21%	21%	20%	14%

□ 등록과정

- 기업주들은 금융서비스회사로부터 등록 전에 정보자료를 받는 것을 가치 있게 인지함(<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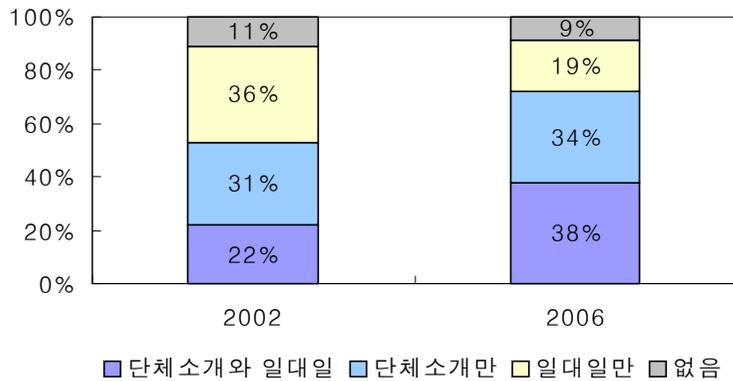
<그림 3> 등록시 중요도가 높은 항목



종업원질문에
응대할 수
있는
콜센터지원
중요한
선택요인임

- o 새로운 자발적 복지급부를 후원하는 경우 기업의 1/3 이상이 일대일 면접에 이은 단체소개모임에 참석하도록 허용하고 있음(<그림 4>).

<그림 4> 제공되는 등록모임



- o 현장에서는 서류를 대신하는 등록방법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전통적인 서류등록수단이 거의 모두 제공되고 있지만 적어도 일부 자발적 급부에 대해서는 랩톱컴퓨터가 두 번째로 인기있는 등록수단임.

* 자료 : MERCER, "Employer's health benefit cost continues to rise", November 19, 2007.

(김진익 선임연구원)

2. EU 동향

<영국, 2006 손해보험 현황 및 전망: 기업성 보험을 중심으로>

1) 보험료 성장률 및 수익성

손해보험
전체 보험료
성장 하락
(-1.1%)

- 2006 손해보험 대부분의 종목이 연성시장 환경에 따라 자동차, 배상책임부문, 재물보험 부문에서만 근소한 성장을 이룬 결과, 손해보험 총 보험료 성장률은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음. 반면, 수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영국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단위 : 억£, %)

종목	보험료					2002-2006 연평균성장률	2006 성장률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동차	126	133	130	128	127	0.1	-0.9
재물	105	121	125	124	124	4.3	0.5
상해 및 건강	54	56	57	57	59	2.2	3.0
배상책임	48	61	61	62	58	4.8	-6.3
금전손실	43	51	48	55	54	5.5	-3.2
계	377	421	420	426	422	2.9	-1.1

기업성보험은
3.3%의
마이너스
성장 시현

- 기업성보험은 배상책임보험, 기업성 재물보험, 금전손실보험, 기업성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보험료 감소를 기록함에 따라, 영국 기업성 손해보험의 보험료 성장률은 3.3% 하락함.
 - 기업성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성장률이 6.3% 하락함으로써 전체 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 2006 기업성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58억 파운드로 6.3%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경쟁 심화에 따른 보험료 인하에 기인함.

- 세부 종목별로는 고용주배상, 공공시설배상, 일반배상 부문에서 보험료 감소가 컸으며, 고용주배상책임은 7.4%의 하락세를 기록하였는데 요율경쟁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남.
- o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성 재물보험과 기업성 자동차보험 또한 성장률이 각각 3.4%, 1%씩 감소하였는데, 이들 종목 모두 경쟁적 환경에 놓여있음에 따라 요율인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 반면, 단체 상해 및 건강보험 시장은 2.5% 성장하였는데 동 부문은 의료비 상승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성종목과 달리 보험요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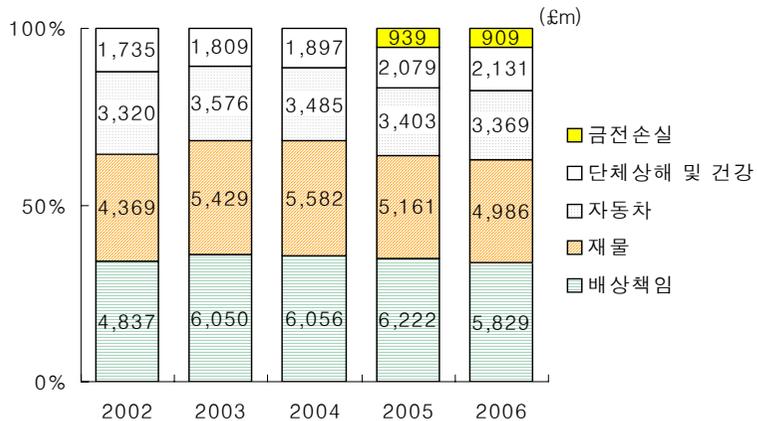
<표 2> 영국 기업성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단위 : %)

종목	2002	2003	2004	2005	2006
배상책임	36.1	25.1	0.1	2.7	-6.3
재물	24.5	24.3	2.8	-7.5	-3.4
자동차	5.5	7.7	-2.5	-2.4	-1.0
단체상해 및 건강	3.1	4.3	4.9	9.6	2.5
금전손실	na	na	na	na	-3.2
계	19.9	18.3	0.9	-0.9	-3.3

비중이 가장
큰 배상책임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그림 1> 영국 기업성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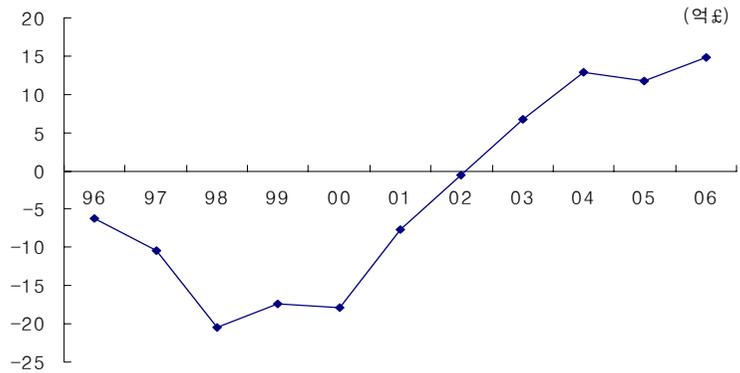


보험동향 2007년 겨울호

손해보험 총
보험영업이
익은 역대
최대 흑자
기록

- 2006년 손해보험 전체 시장은 보험영업이익에서 14.8억 파운드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의 수익 중 가장 성과가 큰 것임.

<그림 2> 영국 손해보험 총 보험영업이익 추이



금전손실,
상해 및 건강
부문의
영업이익이
증가

- 종목별 보험영업이익은 금전손실보험의 경우 6.9억 파운드의 흑자를 기록하여 상해 및 건강보험(4.4억 파운드)과 함께 성과가 전년대비 가장 두드러졌음.
- 일반배상부문의 경우에는 지난 해 1백만 파운드 적자에서 2006년 4천만 파운드의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배상부문에서의 흑자는 이번이 처음임.
-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되었으며, 재물보험에서는 이익규모가 두 번째로 컸으나 전년대비 감소함.

<표 3> 영국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영업이익

(단위 : 백만£)

연도	자동차	재물	상해&건강	배상책임	금전손실	계
2002	-74	-106	261	-444	300	-63
2003	-5	367	218	-303	394	671
2004	-71	778	167	-147	568	1,295
2005	-191	691	154	-1	527	1,180
2006	-204	517	442	40	691	1,486

2) 판매채널

판매채널은
브로커를
포함한
독립중개채
널의 비중이
80%대 유지

- 기업성보험에서의 판매채널은 여전히 브로커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나, national broker들은 직판채널, chain broker, telebroker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음.
- 2003년~2006년 브로커 카테고리내의 변화로, 기업성보험에서 national broker의 판매비중은 2003년 54%에서 2006년 48%로 감소한 반면, chain broker와 telebroker의 비중은 2003년 5%에서 2006년 8%로 증가함.
- 그러나 이들 브로커들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독립중개인 채널의 판매비중(83%)이 가장 크며 2003년에 비해 1%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영향력있는 판매채널임.
- 이는 해마다 수천파운드에 달하는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부분의 기업 고객은 보험상품 가입시 독립적인 채널로부터의 상담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줌.

<표 4> 영국 기업성손해보험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

(단위 : %)

판매채널	2003	2004	2005	2006
Independent intermediaries	84%	84%	82%	83%
- National brokers	54%	54%	50%	48%
- Other intermediaries and brokers	24%	25%	28%	28%
- Chain brokers and telebrokers	5%	5%	5%	8%
Direct	7%	7%	8%	8%
Company staff	1%	1%	1%	1%
Other company agents	5%	4%	3%	4%
Utilities/retailers/affinity groups	2%	2%	3%	2%
Banks/building societies	0%	1%	1%	0%
Other	1%	1%	1%	2%

3) 회사별 실적

기업성보험,
상위 3개사의
보험료성장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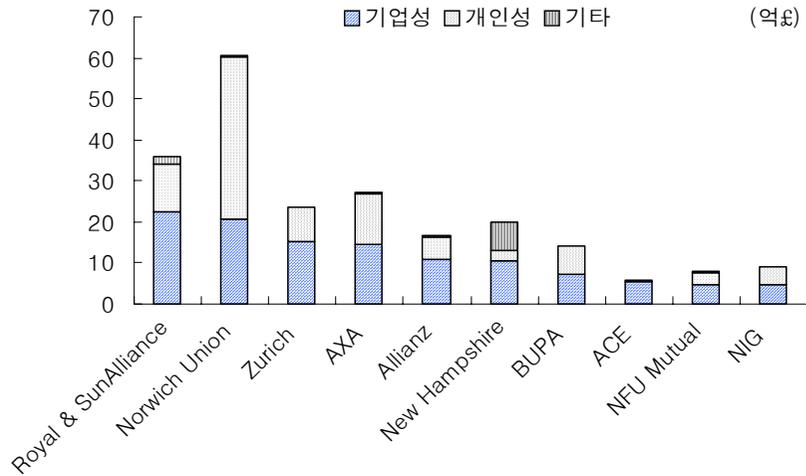
- 기업성보험시장에서 상위 3개사의 수입보험료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내 기업보험시장에서 점유비중이 가장 큰 Royal & Sunalliance사는 배상책임에서의 보험료 성장 하락(-3.5%p)에 따라 기업성보험의 총 보험료 수입이 4.3%p 감소한 22.5억 파운드를 기록함.
- Norwich Union사의 경우 기업성보험료 수입은 3.3% 성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성재물보험과 기업성자동차보험에서 각각 7.8%, 5.6%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데 기인하며, 배상보험이나 기업성 상해 및 건강, 금전손실보험에서는 양호한 성장률을 시현함.
- Zurich사는 기업성보험의 모든 종목에서 성장 하락을 보여 총 기업성보험료는 13.7% 감소한 15억 파운드를 기록하였음.
- 보험종목별로는 배상책임 부문에서의 성장률 하락(-17.1%)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전손실보험(-15.3%), 기업성재물보험(-12.4%) 순으로 나타남.

<표 5> 영국 기업성손해보험 상위 10개사 회사별 보험료

(단위 : 백만£, %)

순위	사명	기업성 보험료	개인성 보험료	기타 보험료	기업성 보험료비중
1	Royal & SunAlliance	2,252	1,147	202	62.5%
2	Norwich Union	2,081	3,953	39	34.3%
3	Zurich	1,530	821	2	65.0%
4	AXA	1,449	1,253	28	53.1%
5	Allianz	1,075	555	54	63.8%
6	New Hampshire	1,063	237	700	53.1%
7	BUPA	727	693	0	51.2%
8	ACE	547	19	1	96.6%
9	NFU Mutual	479	298	10	60.9%
10	NIG	463	456	0	50.4%

<그림 3> 영국 기업성손해보험 상위 10개사 부문별 보험료 구성



4) 보험료 전망

기업성보험
CAGR(2007-12)
5.3% 전망

- 2012년 보험료 규모는 약 221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2007년~2012년 보험료 연평균성장률은 5.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성 자동차보험도 성장률이 호전될 전망이다.
- 단체상해 및 건강부문은 양호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업성 재물보험과 기업성 금전손실보험에서는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성장률은 2006년의 보험료 성장률 하락세가 200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2008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표 5> 영국 기업성손해보험 상위 10개사 회사별 보험료

(단위 : 억£, %)

구 분	보험료						성장률
	배상책임	재물	자동차	단체상해 및 건강	금전손실	계	
2002	48.4	43.7	33.2	17.4	na	142.6	
2003	60.5	54.3	35.8	18.1	na	168.6	18.3
2004	60.6	55.8	34.9	19.0	na	170.2	0.9
2005	62.2	51.6	34.0	20.8	9.4	178.0	4.6
2006	58.3	49.9	33.7	21.3	9.1	172.2	-3.3
2007e	55.6	49.4	34.0	22.1	9.6	170.7	-0.9
2008f	59.8	52.0	37.1	23.0	10.1	181.9	6.6
2009f	68.0	54.3	39.0	24.1	10.5	195.8	7.6
2010f	76.7	56.5	40.7	25.3	10.9	210.0	7.3
2011f	82.0	57.6	41.5	26.7	11.3	219.0	4.3
2012f	82.4	57.0	41.4	28.3	11.6	220.7	0.8
CAGR 2002-06	4.8	3.4	0.4	5.3	na	4.8	
CAGR 2002-12F	5.5	2.7	2.2	5.0	na	4.5	
CAGR 2007E-12F	8.2	2.9	4.0	5.1	3.9	5.3	

자료 : Datamonitor, "UK Commercial General Insurance 2007", 2007.12.

(지재원 선임연구원)

<영국 손해보험 보험사기 추정 및 성향분석>

영국 보험사기
최근 3년간
3배 증가

□ 영국보험자협회(ABI)는 2003년부터 보험사기 적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2006년에는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예방한 규모가 480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2003년 적발된 규모의 3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보험산업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진 미적발 보험사기 피해에 관심을 가지게 됨.

미적발사기
규모 약 16억
파운드로
추정

□ 이에, ABI는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험회사 클레임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적발 사기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연구보고서를 통해 분석자료를 발표함.

○ 2006년, 손해보험 총 순보험료는 310억 파운드에 달하며,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금액은 총 순보험료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인 16억 파운드로 추정됨.

○ 손해보험 미적발 사기와 관련하여 사기의도 유무에 따라 기회주의적 사기(가계성/기업성)와 조직적 사기로 구분됨.

- 기회적 사기(가계성보험) : 개인이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사고를 과장하거나 날조 혹은 부풀리는 것

- 기회적 사기(기업성보험) : 상기와 같은 케이스로 계약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

- 조직적 사기 : 고의로 사기를 유발한 범죄 행위

<표 1> 2006 영국 손해보험시장 원수 순보험료 규모

(단위 : 10억 £)

순보험료	자동차	재물	기타	총계
가계성보험	7.5	5.5	8.6	21.6
기업성보험	2.8	3.0	4.0	9.8
총계	10.3	8.5	12.6	31.4

<표 2> 2006 영국 손해보험 사기청구 추정규모

(단위 : 10억 £)

구 분	추정액
기회주의적 사기(가계성)	0.8
기회주의적 사기(기업성)	0.6
조직적 사기	0.2
총계	1.6

미적발사기는
가계성보험의
기회주의적
사기가 가장
큼

- ABI는 기회주의적 사기 규모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국 성인 6,724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분석 결과, 미적발사기 추정규모 중 가계성보험에서의 기회주의적 사기가 총 규모의 절반인 8억 파운드로 추정되었으며, 동 유형 사기의 분석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함.
 - 동 유형의 사기 중 절반은 재물보험에서 초래
 - 동 유형의 사기로 지급한 평균금액은 800 파운드
 - 날조보다 피해규모를 부풀리는 사례(85%)가 통상적
 - 날조 사기는 전체의 15%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30%를 차지
 - 동 유형의 사기는 주택내 동산 담보에서 가장 많이 발생
 - 또한, 보험사기자의 성향도 분석하였는데 성인의 11.5%(약 5백만 명)가 지난 1년간 보험금 청구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 45세 이상은 평균보다 보험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음.
 - 연간보험료를 500파운드 이상 납입하는 사람은 평균보다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50% 낮음.
 - 주택소유자들은 평균보다 보험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음.
 - 남성은 평균보다 보험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1.6배 높음.

- 잉글랜드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균보다 보험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1.7배 높음.
- 1,000파운드 이상의 무보증 부채를 가진 사람이 평균보다 보험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2배 높음.
- 가구 수입이 연 10,000파운드 미만인 사람이 평균보다 보험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2.6배 높음.
-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평균보다 보험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5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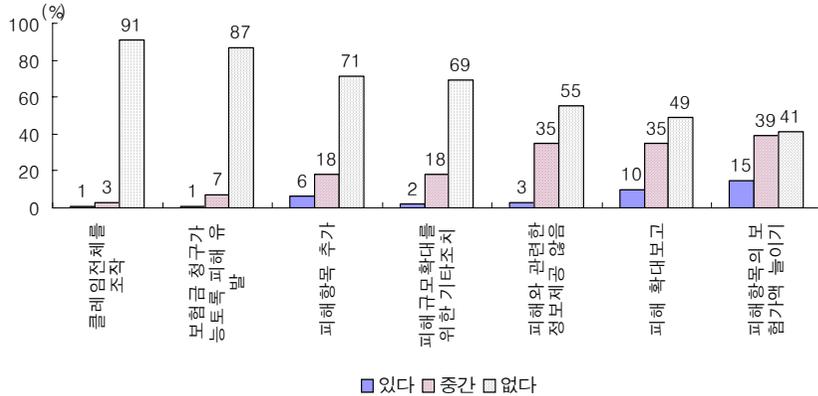
<표 3> 보험금 청구 관련 과장 혹은 조작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구 분	사고규모를 과장한 경험이 있음	사고를 조작한 경험이 있음	사고규모 과장 및 조작경험이 있음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험이 있음
응답자 비율	10.9%	2.3%	1.7%	11.5%
명수(백만명)	4.9	1.0	0.8	5.0

**보험사기
용인가능성 및
소비자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o 보험금 청구 사기와 관련한 특정 행동 유형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묻는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음.
 - 클레임 전체를 조작한다거나, 클레임 청구를 가능하도록 피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 피해규모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피해 항목의 가격을 부풀릴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o 또한, 보험사기 적합도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소비자들의 과거 행동양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함.
 - 보험사기를 날조할 가능성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행동양태이며, 클레임 청구를 과장시키는 것은 해외에서 주류 및 담배를 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와 대응되는 양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사기적 행동 유형별 용인가능성 여부



주 : 무응답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포함하였고, 기타 응답은 제외

<표 4> 기타 행동양태에 대한 경험 유무

행동양태	유경험비율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	1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 날조하여 보험금 청구	2
성인이 되어 물건을 훔침	3
자동차 통행세를 내지 않음	3
보험금 청구시 실제 가치를 과장시킴	5
주류 및 담배를 해외에서 반입하여 국내에 판매	5
TV라이선스료를 미납	7
도둑맞은 물건을 구매	8
호텔에서 타월을 가져옴	9
성인이 되어 공공교통요금을 안냄	12
음주운전	13
100mph 이상 과속	20
중독성없는 환각제 복용	22
중앙선에 주차	27
운전시 휴대폰 사용	34

자료 : ABI, "ABI Research Paper 4: General Insurance Claims Fraud", 2007.10

(지재원 선임연구원)

3. 일본 동향

<일본의 은행 및 생명보험회사의 향후 발전 방안>

일본의 은행 및 생명보험회사는 새로운 수익 기반 재구축이 급선무로 부각

고비용 구조의 판매채계에 대한 채널 재검토가 주요과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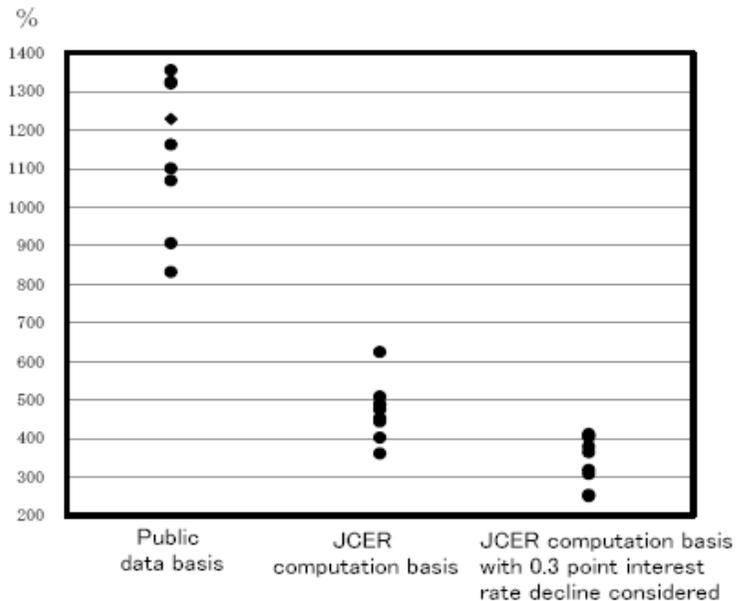
- 일본의 은행 및 생명보험 회사는 2002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익성 및 건전성에 있어서 위기적 상황을 벗어나고 있음.
 - 그러나 은행의 경우, 대출 이익금의 축소 경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험 판매가 주춤하는 등 은행-생명보험회사간의 수익 기반 재구축이 급선무임.
- 은행·생명보험회사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나, 중소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영 통합에 의한 경영효율화 및 새로운 수수료 사업으로 인해 경합이 예상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많은 영업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비용 구조의 판매체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판매채널의 다양화에 맞는 상품 설계, 판매채널의 재검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될 것임.
 - 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판매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은행이나 기존의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설명 책임이나 불만 등에 대한 고객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대응이 불가결한 상황임.
- Japan Financial Report No. 17에서는 현재 지방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비롯해 현 사업과 관련해 미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함.
- 2006년도 생명보험 회사의 결산을 살펴보면, 주가지수의 호조 및 채권시장에서의 금리 하락 등이 미실현 유가증권의 손익을 개선 시킴에 따라 재무구조상의 개선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음.

2006년 회계
결산에 따르면
주요 9개사의
솔벤시마진의
비율은 매우
건전한 상태로
 파악

-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솔벤시마진 비율은 주요 9개사의 경우, 800%-1300%대 범위로 최저 건전 수준인 200%의 4배-7배 수준으로 매우 건전한 상황으로 평가됨.
- 생명보험회사는 고정금리에 따른 장기부채를 가져가고 있으나,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마진의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무제표의 자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반면, 장기금리는 여전히 낮은 추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금리가 크게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으나, 엔화 강세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재개로 일본 경제가 점차 나빠진다면 장기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다시 한 번 발생할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부채를 기간별 데이터를 사용해 금리변동성을 고려한 수정된 솔벤시마진을 고안함으로써 금리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찾게 되었음.

<그림 1> 솔벤시 마진(solvency margin) 비율 분포

그러나 엔화
강세 또는
디플레이션이
재개될 경우
금리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주 : 대상은 주요 생명보험 9사(Nissy, Dai-Ichi, Meiji, Yasuda, Sumitomo, Mitsui, Taiyo, Daido, Asahi and Fukiku)임.

자료 : JCER(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연간
금리리스크가
하락하면 각
사의 재정에 큰
충격을 미치게
될 것임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연간 금리리스크가 0.3%p 하강추세에 있고, 솔벤시 마진의 리스크 값을 고려할 때, 그림과 같이 각각의 회사는 금리리스크가 기업 재정에 큰 충격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초기 평가액보다 20%~40% 정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비록 금리리스크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9개 주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솔벤시 마진 비율은 200%를 초과한 250%~420% 범위내에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줌.

<재검토가 필요한 고비용의 판매 전략>

□ 최근 보험계약의 실적을 살펴보면 해약율은 감소하였으나, 사망 및 보장성 보험의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제3보험이 침체를 보임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저조한 성장을 보였음.

○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은행 창구를 통한 개인연금보험 판매도 FY2006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음.

○ 생명보험회사는 획기적인 상품개발 및 판매채널 등의 경영전략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통적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외국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생명보험과 같은 부수업무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일련의 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생명보험 업계 전체가 수익 확대를 중시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경시하던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잇달아 밝혔지만 문제 발생에 대한 상세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전반적인 그림이 밝혀진 다음, 감독 당국과 업계 쌍방의 진지한 반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임.

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FY2006에는
다소
완화되었음

보험회사의
영업직원
중심의 판매가
대리점 및 은행
창구 등과 같은
타채널로 이동

- <표 1>과 같이 새로운 보험계약과 관계되는 판매채널과 보험회사들은 영업직원 중심의 판매에서 대리점 및 은행 창구 등과 같은 타채널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음.
- 영업직원 채널에는 다수의 채용·퇴직 문제와 함께 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전통적 생명보험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보장성 보험상품에 흡수시켜 온 측면이 있음.

<표 1> 민간 생명보험의 가입 채널의 변천

(단위 : %)

구 분	1994	2006	변동비
생명보험회사 판매직원	88.0	66.3	-21.7p
- 방문판매	53.9	51.0	-2.9p
- 직장방문	30.2	15.3	-14.9p
다이렉트 마케팅	0.7	9.1	8.4p
- 인터넷	-	1.8	-
- TV, 신문, 매거진 외	-	7.3	-
생명보험회사의 직접판매	1.5	2.1	0.6p
은행 및 증권회사	1.9	3.3	1.4p
보험대리점	2.9	7.0	4.1p
기타	4.8	12.2	7.4p

민간생명보험의
가입 채널은
판매직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다이렉트
마케팅은
확대되었음

주 : 본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세대원 2명 이상의 일반가정 4,088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 Japan Institute of Life insurance, " National survey of on life insurance for FY2006".

- 판매채널의 비용 차이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주력 상품의 종류나 가격대, 혹은 상품의 경쟁력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줌.
- 본 조사에서는 <표 2>와 같이 다양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거의 동일한 조건을 설정한 다음 단순한 정기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하였음.

판매채널 비용 차이가 보험 상품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

<표 2> 개인 정기보험 계약에 대한 연간보험료

(단위 : 엔)

	A 사	B 사	C 사	Health Discount	D 사	Health Discount	E 사
연간 보험료	79,265	81,117	74,520	37,440	60,840	57,240	71,640

주 : 계약조건은 30세 남성, 기간은 10년, 보험금액은 3,000만엔으로 매월 납입 조건으로 하였으며, C사의 경우는 비흡연자에 한해서만 건강할인 적용을 받은 계약으로 함. A사와 B사의 유배당 보험으로 인해 최근 배당율을 기초로 배당액을 추정하여 연간보험료에서 감액하였음.

자료 : Policy descriptions and disclosure materials of each insurer.

전통적 채널의 보험상품보다는 통신 및 대리점을 통한 외국사의 상품이 보다 저렴함

- 그 결과, 영업 직원 채널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적 생명보험 A·B사의 보험료는 대리점·통신 판매 등을 주축으로 하는 외국사인 C·D사에 비해 최대 30%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남.
 - o 또한, C·D사에서 선택 가능한 건강할인(건강진단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의 할인)이나 비흡연 할인을 적용하면, 보험료 차이는 한층 더 커져 최대 2배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o 이러한 큰 폭의 보험료 차이는 판매채널의 비용 구조에 기인하고 있으며, 고객이 대리점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할 시, 이러한 상품 비교가 용이하여 편리성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전통적 생명보험의 고비용 구조는 복잡한 판매채널과 고객의 니즈 변화 등으로 더 이상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 o 베테랑 영업직원의 고령화로 젊은이를 어떻게 육성할지도 큰 과제로 있으며, 외국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성격의 상품 판매로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채널 선택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험계약의
창구로서
고객의 편리성
향상 및 보호를
중시한 채널
구축이 시급함**

○ 판매채널은 계약자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객 편리성의 향상과 더불어 설명의 의무를 포함하여 고객 보호를 중시한 채널 구축이 시급함.

* 자료 : JCER, "Japan Financial Report No.17, October 2007" 2007.10.24.

(박정희 연구원)

<2007년 9월 손해보험회사 결산 현황>

□ 일본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손해보험 22개 회원사의 상반기 결산 실적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1. 2007년 9월 손해보험회사 실적 특징

최근 22개 손해
보험 회원사의
수익은
회복되었으나,
수입보험료는
소폭
감소하였음

- 2007년 9월 실적의 핵심사항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이 회복하였으나, 수입보험료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9월 결산실적의 특징으로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태풍 재해에 의한 지급보험금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익면에서 개선되었음.
 - 보험 인수 이익의 측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255억엔의 적자에서 91억엔의 흑자로 전환됨.
 - 자산운용 실적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경상이익이 41.8%, 반기 순이익이 72.6% 각각 성장하였음.
- 2007년 9월 수입보험료 실적은 3조 7,851억엔으로 전년동기대비 32억엔인 0.1% 감소한 반면, 지급보험금은 172억엔(0.8%) 증가한 2조 925억엔을 기록함.

2. 사업실적 개황

손해보험회사의
경상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9월 손해보험회사의 경상이익은 2,527억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744억엔(41.8%) 성장하였으며, 반기 순이익도 750억엔(72.6%) 증가한 1,782억엔을 기록함.
 - 경상수익과 관련해서는 보험 인수수익이 4조 3,416억엔, 자산운용수익이 3,828억엔, 그 외 경상수익이 161억엔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530억엔(1.1%) 감소한 4조 7,405억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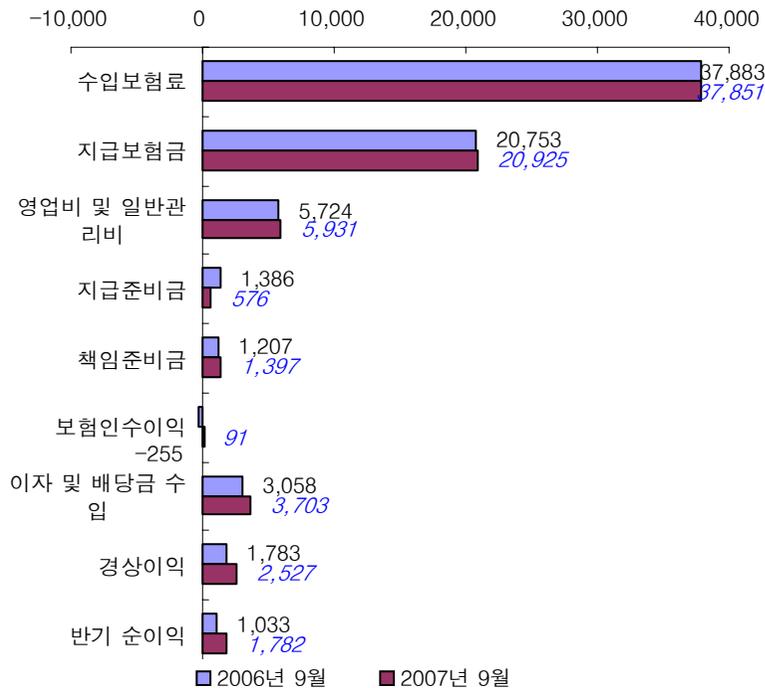
2007년 9월
실적기준으로
손해율과
합산비율은
각각 59.9%,
32.4%를 기록

- 한편, 경상비용에서는 전년동기대비 1,274억엔(2.8%) 감소한 4조 4,878억엔을 기록함.
- 보험인수이익에서는 전년동기대비 346억엔 증가한 91억엔을 기록하였으며, 이자 및 배당금 수입에서는 전년동기대비 21.1%(645억엔) 상승한 3,703억엔을 시현하였음.
- 손해율과 합산비율은 각각 59.9%(0.8%p 상승), 32.4%(0.5%p 상승)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9월 총자산의 경우 1조 7,120억엔 (4.8%) 증가한 37조 7,034억엔을 기록함.

<그림 1> 2007년 9월 사업실적 개황

(단위 : 억엔)

2007년 9월
총자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37조
7,034억엔을
기록



3. 보험 인수의 개황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의
수입감소로
수입보험료는
소폭 감소

□ 최근 수입보험료 실적은 화물, 운송의 활성화로 인해 해상보험이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의 주력인 자동차 보험과 화재보험의 수입 감소로 인해 전체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3조 7,851억엔을 시현함.

*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출재보험료

<표 1>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억엔, %)

	수입보험료			
	2006년 9월	2007년 9월		
	금액	금액	증감율	구성비
자동차	17,650	17,604	-0.3	46.5
화재	5,162	5,109	-1.0	13.5
해상/운송	1,398	1,505	7.7	4.0
상해	3,561	3,523	-1.1	9.3
손해배상책임	5,802	5,736	-1.2	15.1
기타	4,309	4,374	1.5	11.6
계	37,883	37,851	-0.1	100.0

지급보험금은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71억엔(0.8%)
상승하였음

□ 지급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상해보험 등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1억엔(0.8%) 증가한 2조 925억엔을 기록함.

* 지급보험금=원수보험금+수재보험금-회수재보험금

○ 또한, 손해율에 있어서는 전년동기대비 59.1%에서 0.8%p 상승한 59.9%을 기록하였음.

□ 보험 인수와 관련되는 「영업비 및 일반 관리비」는 신뢰 회복을 향한 사내 체제 정비를 실시하는 등으로 비용지출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06억엔(3.6%) 증가한 5,931억엔이 되었으며, 사업비율은 0.5%p 상승한 32.4%를 기록함.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은
기업실적 회복
및 개선에 따라
배당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솔벤시마진도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9월 실적의 수입보험료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태풍 재해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보험인수 이익은 255억엔의 적자에서 91억엔의 흑자로 전환됨.

4. 자산 및 자산운용의 개황

□ 2007년 9월말 총자산은 37조 7,034억엔으로 전년동기말과 비교하여 주가지수 상승에 기인하여 35조 9,914억엔에서 4.8%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은 기업실적의 회복·개선에 따라 배당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21.1% 상승한 3,703억엔으로 높은 수익에 기인함.

5. 솔벤시마진(Solvency Margin) 비율

□ 솔벤시마진(Solvency Margin) 비율은 보험회사에 법률로 요구하는 적정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건전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

* 자료 : 平成19年9月中間期 損保決算概況について, No. 07-035, 2007.12.18.
http://www.sonpo.or.jp/news/release/2007/0712_03.html.

(박정희 연구원)

4. 기타 동향

<중국 - PWC, "중국의 외국계 보험사" 보고서 발간>

PWC는
중국진출
외자계
보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외국사
대부분은
중국시장의
과다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외자계 보험사의 인터뷰를 토대로 “중국의 외국 보험사”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보험사를 대표하는 24개 보험사의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됨.
 - 설문에 참여한 생명보험사는 AIA, Allianz, ING 등을 비롯한 16개 사이며, 손해보험사는 Groupama, Liberty Mutual, Mitsui Sumitomo 등 8개 사임.
 - 아래에서는 설문결과 중 몇 가지 결과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자함.
- 현재 중국보험시장의 세가지 중요한 우려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과다한 규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음.
 - 외국보험사들은 중국보험규제당국이 공급측면에 대한 감독에 치중하기 때문에 판매과정에 대한 규제보다는 상품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함.
 - 또한 WTO이후 기대했던 만큼 시장이 개방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함.
 - 다음으로는 설계사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과 신뢰도 하락 등 보험설계사의 안 좋은 이미지도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됨.
 - 이밖에 중간관리자의 자질문제, 파트너에게 자본부담을 초래하는 합자규제, 자동차 책임보험 진입불허 등이 언급됨.

**그러나
앞으로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 중국 금융시장에 나타날 중요한 변화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보험사들은 규제에 있어서의 변화를 지적하였음.
 - 많은 보험사들은 규제완화로 인해 외국보험사가 새로운 활로를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투자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투자수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5년 정도의 만기가 짧은 상품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보험 소비자들의 단기적 시야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내국의 대형은행들이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의 허용도 주목되는 변화로 언급됨.
 - 그 외에 새로운 규제의 출현, 재보험 규제의 완화, 국내사들의 국제화, 건강보험, 단체보험에서의 기회 등이 언급됨.

**유능한 직원
채용의
어려움이
극복해야할
문제로
지적됨**

- 외국계 보험사가 극복해야 할 이슈들에 대한 설문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채용 및 육성이 지적됨.
 - 뒤를 이어 판매채널의 채용 및 육성, 수입보험료 증대를 위한 노력, 고객기반의 확립, 이윤성과, 증가하는 규제 요구, 브랜드 인지도 등이 언급됨.
 - 이 질문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수수료의 투명성, 데이터 보안, 경제 성장률 하락 등이 손해보험에서의 이슈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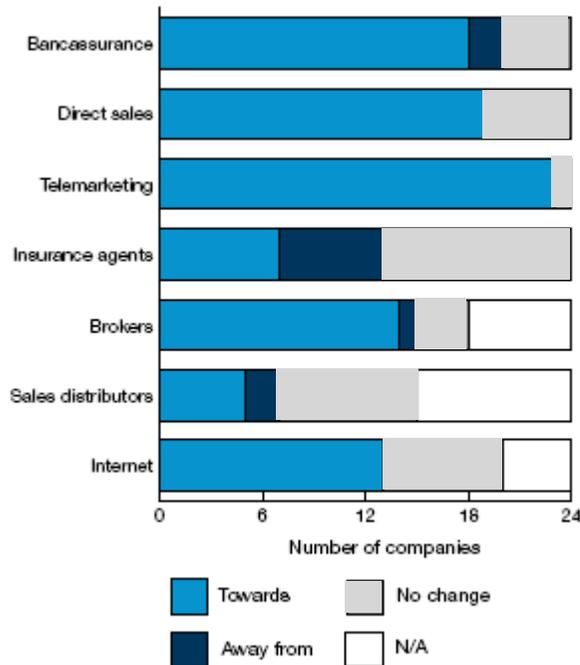
**보험에 대한
이해도
증가가
예상됨**

- 2010년 보험소비자들의 니즈는 지금에 비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보험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함.
 - 또한 정교한 보장성 상품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이며, 설계사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답함.
 - 가격이 다양화 될 것이며 보험산업의 발전은 상하이 시장에서 제일 먼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
와
직접판매의
비중확대를
예상함

- 그러나 몇몇 보험사들은 2010년이 비교적 짧은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으로 내다봄.
- 판매채널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방카슈랑스와 직접판매, 텔레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대답함.
- 방카슈랑스가 현재에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았고, 인터넷의 경우 초기 결과가 신통치 않지만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방카슈랑스의 확대에 의한 은행 수수료의 인상과 복잡한 상품을 팔기에 한계가 있는 은행 직원들의 능력 등은 위협요인으로 나타남.
- 설계사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현재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비중이 증가한다와 감소한다는 대답이 비슷하게 나옴.

<그림 1> 중국보험시장의 판매채널 변화 예상



**각사는
앞으로도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2007년과 2010년의 보험사별 성장률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가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대답함.
-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예상한 회사는 200%~300%라고 대답하였으며, 5개 회사가 2007, 2010년 각각 10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한 회사의 성장률도 25%~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많은 회사들이 75%~100% 사이라고 예상하였음.

**그러나
보험산업의
성장률은
대부분
12.5%~20%
사이라고
응답함**

- 마지막으로 2007년과 2010년의 보험산업 성장률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사의 예상 성장률과 대비되는 응답이 많았음.
- 가장 높은 성장률을 제시한 회사들은 2007년, 2010년 각각 3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응답하였고, 대부분은 12.5%~20% 사이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에 있어서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Foreign Insurance Companies in China, PriceWaterHouseCoopers. 2007.9.

(김세중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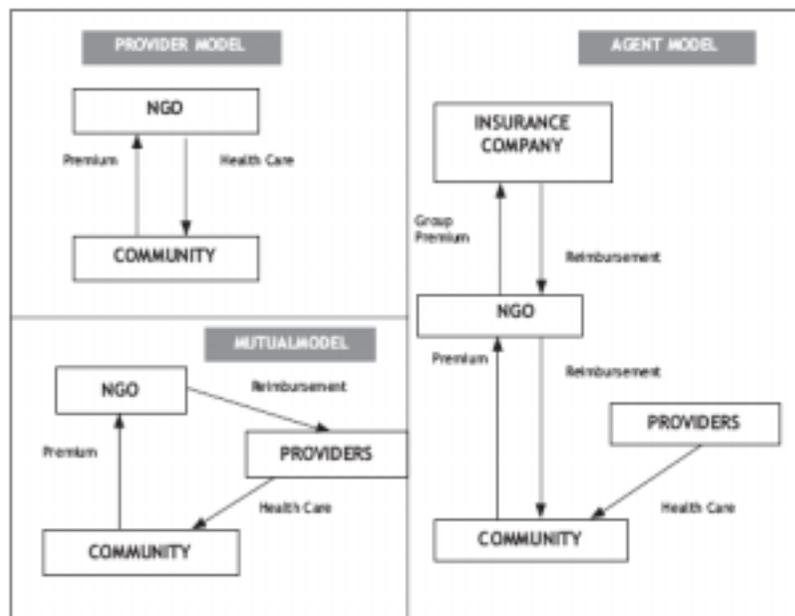
<인도 - 인도의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

IRDA는
저널을 통해
마이크로
인슈어런스를
집중 조명함

- 인도보험감독당국인 IRDA는 월간저널을 통해 마이크로 인슈어런스를 집중 조명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그 중 인도의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를 다룬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함.
 - 보고서는 인도에 산재해 있는 10개 이상의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체계를 운영하는 매니저, 스텝 그리고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함.
 - 인도의 모든 마이크로 건강보험은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대상그룹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반을 다져왔음.
 -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는 대부분 농부, 토지가 없는 노동자, 행상, 어부, 부족(tribe) 등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는 NGO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그림 1>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의 종류별 구조



보험동향 2007년 겨울호

- NGO의 힘이 가장 센 모형은 "provider" 형으로 NGO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사의 기능까지 겸함.
- "mutual" 모형은 NGO가 보험사의 역할만을 맡는 모형으로 펀드를 조성한 후 의료 서비스를 구입함.
- 마지막으로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agent"모형은 NGO가 보험료를 모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거수된 보험료는 보험사에게 넘겨지게 되어 모든 리스크가 보험사에 전가됨.

**보험료는
연단위로
집단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모금됨**

- 일반적으로 NGO 들은 보험료를 연단위로 거두어들이며 모집은 집단 내에 이미 존재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이러한 모집방법은 보험료 징수에 의한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임.
- 보험료의 범위는 개인당 20루피(460원 정도)에서 5인 가족 기준 250루피 등이며 이러한 낮은 보험료는 대상 그룹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것임.
- 또한 보험료는 그 대상 집단의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맞추어 모금되며 개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집단에 맞추어 보험료가 계산됨.

**NGO들은
운영비용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NGO들은 보험에 대한 인식의 제고, 보험료의 모금, 보험금 지급 등 많은 활동을 떠맡으면서 운영비용을 절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전략적 구매나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건강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 비용증가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도 사용되고 있음.
- 역선택의 방지를 위해 가족단위로만 가입을 받거나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부분을 환자가 부담하거나 진료비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등의 방법이 사용됨.
- 그러나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통일된 규약을 사용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들은 대부분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마이크로 건강보험의 실제 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가 빈곤층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그것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논란이 있음.
- 모든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는 빈곤층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목표 대상 중 등록률은 10~40% 정도로 알려져 있음.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가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있음.
- 또한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가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보호장치(financial protection)로 기능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주요 비판 대상이었던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보조금에 의존하던 과거의 모형에서 보험료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agent"모형이 보편화되면서 향상되고 있음.

따라서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역할도 필요함.
-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법적장치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인도에서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방법이 제시됨.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를
확장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하나는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보험료를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보험료를 낮추어도 시스템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하고, 비용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야 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더 나은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하나는 여러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를 연방화시켜 가입자들을 늘리는 것임.
- 이것은 운용비용을 낮추고 보험사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독일과 벨기에 등에서 채택되었던 방법임.

**체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보험료의
균형이
중요함**

- 결국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의 발전은 제공되는 보험 서비스와 지불가능한 보험료 사이의 민감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
- 산부인과 진료 등과 같은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빈곤층이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유지하려면 운용비용의 최소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결국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마이크로 건강보험 체계 지속가능성의 열쇠임.

자료 : Perspectives and Prospects in Micro Health Insurance, IRDA journal, 2007. 11.

(김세중 연구원)

<베트남 - 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베트남 보험사>

베트남
보험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음

- 시장통합화와 베트남 정부의 시장 개방 의지로 인해 베트남 보험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음.
 - 정부소유였던 Vietnam Insurance Corporation(Bao Viet), Bao Minh, Petro Vietnam Insurance(PVI)등은 IPO 되었고 세계적인 외국계 보험그룹에 지분을 넘겼음.
 -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 보험시장에서 경쟁의 증가를 의미하며 내국사들의 시장점유율에도 변화를 야기함.
 - 9월 12, 13일 이틀간 Bao viet 과 Bao Minh은 각각 전략적 파트너로 HSBC와 AXA를 선택했다고 발표하였고 Vietnam reinsurance corporation(Vinare)와 PVI등은 외국계 파트너와 협상 중에 있음.

WTO협정에
따라 베트남
보험시장은
2008년 1월
완전 개방될
예정임

- 베트남의 WTO 협정에 따르면 베트남보험시장은 2008년 1월 완전 개방되며 이후에는 외국계 회사도 강제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함.
 - 따라서 국내보험사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외국사와의 경쟁에 직면할 것임.
 - 베트남 보험협회 관계자는 2008년 1월이 아니라 지금부터 외국사들과의 경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함.
 - 1993년 베트남 정부는 합자회사와 외국인 투자 보험사의 베트남 내 영업을 허가한 바 있음.
 - 또한 2001년 10월 미국과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현재 베트남은 미국보험사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제거한 상태임.
- 베트남의 국내 보험사들은 적어도 6년간을 준비해 왔으며 신생보험사를 제외한 Bao Viet, Bao Minh, PVI, Petrolimex Insurance Company 등은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국내사들은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국내사가 통합화되고 있는 베트남시장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이익의 원칙아래 외국사와 협력해야만 하며, Bao Viet, Bao Minh, Vinare의 기업공개는 용감한 것이었다고 Bao Viet의 사장인 Le Quang Binh은 언급함.
- 2005년 11월 정부로부터 기업공개와 금융그룹 설립을 허가받은 Bao Viet은 2년 후 주식시장 상장과 외국파트너 선정을 통해 기업공개 과정을 마무리 지었음.
- Bao Viet의 IPO와 관련하여 베트남 재경부는 Bao Viet 그룹의 설립자본을 정부 77.54%, 국내자본 3.68%, 외국자본 10%, 기타 8.78%로 조정하였음.

**Bao Viet과
Bao Minh은
적절한 외국
파트너를
선정한
것으로 보임**

- Bao viet IPO의 가장 큰 성공은 Bao Viet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로 HSBC를 선택했다는 것임.
- 그사이 Bao Minh은 전략적 파트너로 유럽의 우수 손해보험사인 AXA를 선택함.
- AXA와의 계약에 의하면 Bao Minh은 AXA 그룹의 기술적 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으며, 보험 상품의 다양화와 보험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Bao Minh 브랜드의 육성 등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임.

자료 : A Revolution in Insurance Market, VietnamNet. 2007.10.4.

(김세중 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6			CY2007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5.1	4.8	4.0	4.0	5.0	5.2	
경상수지	235.0	1,016.9	6,110.9	-1,662.2	34.4	4,430.2	
수 출	81,473	82,713	87,394	84,709	92,996	90,523	
수 입	76,720	80,216	79,905	82,278	87,921	86,013	
실업률	3.4	3.3	3.2	3.6	3.2	3.1	
금리	국고채(3년)	4.89	4.69	4.82	4.79	5.24	5.39
	회사채(3년)	5.17	5.02	5.18	5.20	5.64	5.85
소비자물가지수	102.0	103.3	102.6	104.1	104.6	105.7	
환율	원/달러	960.3	945.2	929.6	940.3	926.8	920.7
	원/엔화	834.0	802.2	781.8	797.0	752.4	796.7
KOSPI	1,295.15	1,371.41	1,434.46	1,452.55	1,743.60	1,946.48	
외환보유고	224,357	228,224	238,956	243,915	250,702	257,294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CY2006			CY2007		
	2/4	3/4	4/4	1/4	2/4	3/4
보 험	93,699	89,600	115,113	94,663	106,338	93,397
생명보험	74,238	69,914	94,257	74,700	83,189	70,215
손해보험	19,461	19,686	20,856	19,963	23,149	23,182
은 행	225,384	128,483	181,165	33,002	101,574	8,442
일반계정	183,429	82,785	165,339	-2,513	114,075	-42,781
신탁계정	41,955	45,698	15,826	35,515	-12,501	51,223
증 권	18,650	48,065	13,445	29,858	85,722	37,556
투 신	-5,011	25,649	97,260	73,030	16,893	112,258
종 금	31,812	53,010	10,350	60,303	79,432	37,691

주 :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119,887	30,188	31,314	32,398	36,266	130,166	34,612	34,008
	성장률	-1.2	5.6	6.4	7.5	14.3	8.6	14.7	8.6
	구성비	19.5	19.2	20.1	18.0	21.3	19.6	19.9	19.3
사망	보험료	271,215	69,685	70,840	72,127	72,985	285,637	73,721	73,777
	성장률	6.2	4.9	5.3	5.8	5.3	5.3	5.8	4.1
	구성비	44.1	44.3	45.5	40.0	42.5	43.0	42.3	41.8
생사 혼합	보험료	72,596	16,689	16,636	16,974	17,619	67,918	16,830	16,266
	성장률	-8.9	-8.9	-11.0	-6.1	0.6	-6.4	0.8	-2.2
	구성비	11.8	10.6	10.7	9.4	10.3	10.2	9.7	9.2
변액 보험	보험료	83,822	27,479	27,675	29,406	30,717	115,278	37,097	43,514
	성장률	252.4	127.2	70.7	18.8	-0.1	37.5	35.0	57.2
	구성비	13.6	17.5	17.8	16.3	17.9	17.3	21.3	24.7
개인계	보험료	547,521	144,041	146,465	150,906	157,587	598,999	162,260	167,565
	성장률	14.0	14.9	11.3	6.9	5.5	9.4	12.6	14.4
	구성비	89.1	91.7	94.1	83.7	91.9	90.1	93.2	95.0
단체	보험료	67,201	13,095	9,186	29,309	13,960	65,550	11,924	8,848
	성장률	17.1	13.6	-7.1	-15.0	23.6	-2.5	-8.9	-3.7
	구성비	10.9	8.3	5.9	16.3	8.1	9.9	6.8	5.0
합계	보험료	614,722	157,136	155,651	180,215	171,547	664,549	174,185	176,413
	성장률	14.4	14.8	10.0	2.6	6.8	8.1	10.8	13.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79,830	18,366	20,876	20,244	22,133	81,619	20,781	25,507
	증가율	12.2	2.7	12.6	-4.0	-0.9	2.2	13.1	22.2
	지급률	66.6	60.8	66.7	62.5	61.0	62.7	60.0	75.0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99,169	25,910	29,005	27,675	29,430	112,019	27,583	29,735
	증가율	9.4	14.1	19.1	11.6	7.7	13.0	6.5	2.5
	지급률	36.6	37.2	40.9	38.4	40.3	39.2	37.4	40.3
생존사합보험	지급보험금	109,596	18,080	18,284	18,737	18,379	73,480	18,237	22,531
	증가율	7.1	-26.1	-29.2	-47.9	-21.2	-33.0	0.9	23.2
	지급률	151.0	108.3	109.9	110.4	104.3	108.2	108.4	138.5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5,417	3,317	4,077	6,149	8,074	21,616	11,149	15,209
	증가율	86.4	454.7	381.5	307.5	227.8	299.1	236.2	273.1
	지급률	6.5	12.1	14.7	20.9	26.3	18.8	30.1	35.0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294,012	65,672	72,242	72,805	78,016	288,734	77,750	92,981
	증가율	10.1	0.1	3.9	-12.7	3.4	-1.8	18.4	28.7
	지급률	53.7	45.6	49.3	48.2	49.5	48.2	47.9	55.5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61,803	17,208	13,496	13,154	18,831	62,425	13,246	13,217
	증가율	25.7	17.6	12.9	-20.1	0.5	1.0	-23.1	-2.1
	지급률	92.0	133.5	170.7	44.9	134.9	95.2	111.1	149.4
전체	지급보험금	355,815	82,898	85,737	85,958	96,847	351,159	90,995	106,198
	증가율	12.5	3.2	5.2	-13.9	2.8	-1.3	9.8	23.9
	지급률	57.9	52.7	55.1	47.7	56.5	52.8	52.2	60.2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5	FY2006					FY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 보 존 합	사업비	18,639	5,562	6,029	6,448	6,917	24,956	7,062	7,736
	증가율	-4.9	47.3	39.2	28.7	25.2	33.9	27.0	28.3
	사업비율	15.5	18.4	19.3	19.9	19.1	19.2	20.4	22.7
사 보 망 합	사업비	65,218	15,872	17,138	17,855	18,947	69,813	17,655	18,279
	증가율	-4.9	-1.3	8.5	5.6	15.3	7.0	11.2	6.7
	사업비율	24.0	22.8	24.2	24.8	26.0	24.4	23.9	24.8
생 혼 보 사 합 합	사업비	22,894	5,770	5,398	5,538	5,951	22,656	5,454	6,558
	증가율	52.7	6.0	-1.8	-5.0	-2.8	-1.0	-5.5	21.5
	사업비율	31.5	34.6	32.4	32.6	33.8	33.4	32.4	40.3
개 인 보 험 계	사업비	106,750	27,203	28,565	29,842	31,815	117,425	30,172	32,574
	증가율	6.6	7.5	11.5	7.5	13.3	10.0	10.9	14.0
	사업비율	19.5	18.9	19.5	19.8	20.2	19.6	18.6	19.4
단 체 보 험 계	사업비	3,200	765	788	836	1,042	3,499	760	784
	증가율	3.7	11.5	7.5	-10.6	23.3	9.3	-0.6	-0.6
	사업비율	4.8	5.9	8.6	2.9	7.5	5.3	6.4	8.9
전 체	사업비	109,950	27,968	29,354	30,678	32,856	120,924	30,932	33,358
	증가율	6.5	7.6	11.4	6.9	13.6	10.0	10.6	13.6
	사업비율	17.9	17.8	18.9	17.0	19.2	18.2	17.8	18.9

-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756	716	902	758	3,132	743	679
	성장률	-4.8	-4.7	-1.2	-3.5	-3.4	-1.8	-5.2
	구성비	1.1	1.0	1.2	1.0	1.1	0.9	0.8
해 상	보험료	2,101	1,604	1,304	1,314	6,323	1,735	1,783
	성장률	50.2	13.6	1.9	10.9	19.9	-17.4	11.2
	구성비	3.0	2.2	1.7	1.7	2.1	2.2	2.2
자동차	보험료	22,598	24,344	24,444	25,106	96,492	25,838	26,913
	성장률	5.7	10.3	9.4	13.6	9.8	14.3	10.6
	구성비	32.6	33.7	31.4	32.9	32.6	32.6	33.0
보 증	보험료	2,972	2,665	3,073	2,718	11,428	2,424	2,341
	성장률	31.8	11.5	10.1	3.4	13.5	-18.4	-12.2
	구성비	4.3	3.7	3.9	3.6	3.9	3.1	2.9
특 종	보험료	6,143	6,159	6,813	5,872	24,987	6,584	6,728
	성장률	6.9	7.2	8.8	14.0	9.1	7.2	9.2
	구성비	8.9	8.5	8.7	7.7	8.4	8.3	8.2
해외 원보험	보험료	156	205	278	184	823	191	254
	성장률	20.9	43.1	69.9	6.4	35.2	22.4	23.9
	구성비	0.2	0.3	0.4	0.2	0.3	0.2	0.3
장 기	보험료	31,564	33,352	34,814	37,072	136,802	38,628	39,850
	성장률	19.3	21.6	21.2	23.9	21.5	22.4	19.5
	구성비	45.6	46.1	44.7	48.6	46.2	48.7	48.8
개 인 연 금	보험료	1,836	1,884	2,119	2,136	7,975	2,265	2,388
	성장률	9.0	9.8	18.5	19.4	14.3	23.4	26.8
	구성비	2.7	2.6	2.7	2.8	2.7	2.9	2.9
퇴 직 보 험	보험료	1,133	1,370	4,216	1,149	7,868	892	724
	성장률	-18.1	234.5	-18.3	52.8	2.1	-21.2	-47.2
	구성비	1.6	1.9	5.4	1.5	2.7	1.1	0.9
계	보험료	69,259	72,299	77,962	76,309	29,829	79,300	81,659
	성장률	13.1	16.5	12.3	18.3	15.0	14.5	12.9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관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6				FY2007	
		1/4	2/4	3/4	4/4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8.8	40.7	40.2	39.6	40.9	47.0
	사업비율	46.2	42.7	48.6	45.6	49.6	44.0
	합산비율	95.0	83.4	88.8	85.2	90.5	90.9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1.3	50.3	46.4	52.1	47.3	54.8
	사업비율	27.7	30.0	31.2	33.5	32.7	31.9
	합산비율	79.6	80.2	77.7	85.6	80.0	86.7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7.2	78.9	79.5	79.0	73.6	73.7
	사업비율	31.4	31.6	31.5	31.8	29.8	30.7
	합산비율	108.6	110.5	111.0	110.7	103.4	104.5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16.2	10.5	21.5	23.4	28.0	24.3
	사업비율	12.5	19.2	17.3	21.5	16.0	20.4
	합산비율	28.8	29.7	38.8	44.9	43.9	44.7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8.5	55.8	56.8	55.3	54.3	56.5
	사업비율	22.1	23.3	24.5	26.2	24.7	25.0
	합산비율	70.5	79.2	81.3	81.5	79.0	81.5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26.1	40.4	36.7	44.7	26.8	29.4
	사업비율	97.7	97.3	98.0	93.2	62.1	70.5
	합산비율	123.8	137.7	134.7	137.9	88.9	99.8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6.7	85.3	84.3	83.9	81.8	81.5
	사업비율	17.4	18.0	18.5	18.4	17.9	18.2
	합산비율	104.1	103.2	102.8	102.3	99.7	99.7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9.9	119.8	118.9	125.4	115.8	116.0
	사업비율	9.5	9.2	9.3	9.4	9.4	9.6
	합산비율	129.4	129.0	128.2	134.8	125.2	125.6
전 체	경과손해율	78.6	78.7	78.8	78.6	75.8	75.9
	사업비율	22.6	23.2	23.5	23.8	22.4	23.0
	합산비율	101.2	101.9	102.3	102.3	98.2	98.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 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연구조사자료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김세환,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조재현,박정희 2006.3
- 2006-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대응방안 / 류건식,김석영,이상우,박정희,김동겸 2006.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장이규,이경희,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 정책연구자료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6.11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비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
중 2007.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회사 CEO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20호 선진 보험회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CEO Report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_____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씨티은행 (110-55016-257)
-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도서

2008년 1월 10일

발행인	정	채	응
편집인	유	형	균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대화인쇄
전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5, 368-4240)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